차 례

제 1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따라배우자

이 판에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열어놓으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자면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를 깊이 체득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김정일**장군님혁명활동연구실》도록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력사가 폭넓고 깊이있게 담겨져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열어놓으신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장군님께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가장 충직하게 받들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해오신 충실성의 력사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수십성상에 걸쳐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혁명가의 빛나는 력사입니다.

특히 우리 민족이 대국상을 당한 이후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치렬한 싸움을 벌리던 준엄한 시기에 선군혁명령도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내신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는 가장 숭고한 동지애와 고매한 인민적풍모를 지니시고 오로지 인민의 행복과 리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력사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를 깊이 학습할 때 소년단원들은 우리 장군님이 세상에서 제일이시라는것을 잘 알고 장군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끝까지 충실할수 있습니다.

모든 소년단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깊이 학습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자신을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합니다.

제 2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백두산밀영에서 탄생하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은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할 위대한 태양이 솟아오른 민족의 일대 경사였고 가장 큰 행복이였으며 전세계적인 사변이였다는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어린시절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백두산은 나의 고향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31(1942)년 2월 16일 백두산밀영에서 탄생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시던 시기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발전에서 새로운 력사적전환이 일어나고있던 격동적인 시기였습니다.

일제날강도놈들은 아시아의 곳곳에 전쟁의 불을 지르는 한편 우리 인민들을 그 어느때보다 더 억누르고 피땀을 짜내면서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것은 멸망을 앞둔 일제놈들의 마지막발악이였습니다.

오랜 세월 왜놈들을 무찌르며 싸워오신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이 시기 백두산밀영을 중심으로 백두산을 타고앉으시여 조국을 해방할 마지막 판가리싸움을 준비하고계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일제침략자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조국해방의 날을 앞당겨나가시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행복이고 더없는 영광이였으며 민족의 크나큰 경사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시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우리 인민들과 항일유격대원들은 서로서로 얼싸안으며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으며 하늘땅이 울리도록 환호성을 터치였습니다.

그들은 밀영주변과 국내각지의 아름드리나무들에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을 알리는 글발들을 새기였습니다.

○ 이 사진은 항일유격대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을 칭송해서 아름드리나무들에 새긴 구호문헌입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백두산의 아들,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위대한 장군님을 《백두광명성》이라고 높이 칭송하였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태양이신 아버지대원수님의 뒤를 이어 장차 조선혁명의 미래의 태양이 되여주실것을 바라는 뜨거운 마음에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50돐을 맞으며 송시를 쓰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백두산밀영에 세운 송시비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81(1992)년 2월 16일 탄생 50돐을 맞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축하하여 다음과 같은 송시를 지으시였습니다.

백두산정 정일봉
소백수하 벽계류
광명성탄 오십주
개찬문무 충효비
만민칭송 제동심
환호성고 진천지

백두산마루에 정일봉 솟아있고
소백수 푸른 물은 굽이쳐흐르누나
광명성 탄생하여 어느덧 쉰돐인가
문무충효 겸비하니 모두다 우러르네
만민이 칭송하는 그 마음 한결같아
우렁찬 환호소리 하늘땅을 뒤흔든다

송시에는 한없이 숭고한 위인의 풍모를 지니시고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아버지대원수님의 높은 칭송과 두터운 신뢰가 담겨져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은 경애하는 아버지대원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갈 향도의 태양이 솟아오른 민족의 대경사였고 인류의 밝은 미래를 약속해준 력사적사변이였습니다.

제 3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가정은 가장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가정이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가정에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부모님과 동생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가정은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대원수님을 아버님으로,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을 어머님으로 모신 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애국, 애족, 애민의 위대한 혁명적가정입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아버님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

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아버님이신 **김일성**대원수님은 우리 인민이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며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십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를 열어놓으시였으며 탁월한 령도로 조국해방을 이룩하시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이 땅우에 인민이 주인된 주체의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우시였습니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아버지대원수님은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어머님이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는 어려서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오로지 조국과 인민, 당과 혁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으며 우리를 수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나가도록 키우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은 아버지대원수님을 위하여, 조국의 광복

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신 항일의 녀성영웅이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일가는 대를 이어 나라와 인민을 위해 한생을 바쳐 싸워온 위대한 혁명일가, 애국일가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 만경대가문은 대대로 나라에는 애국충정을 바치고 혁명사업에는 헌신하며 부모에게는 효도를 다하는 가문입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관디엔(관전)회의를 지도하시는 할아버님이신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이십니다.

할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은 지원의 높은 뜻을 지니시고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으며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무산혁명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무기를 운반하여오시는 할머님이신 조선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강반석녀사이십니다.

할머님이신 강반석녀사는 조국의 광복과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신 혁명투사이시였으며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삼촌이신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철주선생님이십니다. (오른쪽에 계시는분)

삼촌이신 김철주선생님도 일찍부터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하여 조국광복을 위해 적들에게 희생되는 마지막순간까지 굴함없이 싸우신 열렬한 혁명투사이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외할아버님이신 김춘산선생님은 반일독립운동에 한몸바치신 반일애국투사이시였으며 외삼촌들이신 김기준, 김기송선생님들도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 열렬한 혁명투사들이시였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면서 일가분들모두가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열렬히 싸운 애국적이고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찍부터 인민의 령도자, 민족의 위대한 아들로서의 풍모를 갖추고 성장하실수 있게 한 고귀한 터전으로 되였습니다.

제 4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남달리 총명하고 뛰여난 천품을 지니고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어린시절부터 지니신 남달리 뛰여난 천품에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아버님의 뜻을 따라 백두산에 오르실 결심을 다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리실 때 백두산은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고 하시면서 아버님의 뜻을 따라 백두산에 오르실 결심을 다지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남달리 사물현상에 대한 예리한 관찰력과 명확한 분석력, 다양한 사물현상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정확히 가려내는 비상한 통찰력과 판단력을 지니고계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닭이 물을 먹을 때 왜 머리를 쳐드

는가를 관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주체36(1947)년 가을 어리신 장군님께서 아버지대원수님을 모시고 함경북도 경성군에 가시였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닭에게 모이를 주시다가 닭이 물을 먹을 때 목을 쳐드는것을 신기하게 생각하시고 닭들을 따라다니시며 유심히 살피시여 끝내 닭이 물을 물고 인차 목을 곧추 쳐드는것은 물을 빨아먹지 못하기때문에 목을 쳐들어 물이 입안으로 흘러들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내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셈세기공부를 잘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어느날 유치원셈세기공부시간에 교양원은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된다는것을 가르치였습니다.

그런데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면서 어제 진흙을 빚어 땅크를 만들면서 내가 빚은 진흙덩이에 동생이 빚은 진흙덩이를 합치니 하나가 되였고 꽃밭에 물을 줄 때에도 먼저 떨어진 물방울에 다른 물방울이 합쳐져 큰 한방울이 되였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하나에다 하나를 합하여 하나가 될 때에는 그저 하나가 되는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여럿이 합하여 하나가 될 때에는 굉장히 큰 하나가 됩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그러시고는 우리 어머님은 위대한

장군님을 따르는 인민의 힘은 아무리 합쳐도 하나가 된다고 가르치시였다고 하시면서 한마음으로 장군님을 받드는 우리 인민의 힘은 이 세상에서 제일 세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모든 문제를 혁신적으로 보는 창조적인 사고력, 크나큰 담력과 억센 기질을 지니고계시였습니다.

백두산의 정기와 기상을 그대로 닮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무엇을 하나 생각해도 담대하고 통이 크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방후 우리 로동계급이 처음으로 만들어 바다에 띄운 철선을 보시면서 앞으로 더 크고 훌륭하게 만드실 꿈을 키우시였습니다.

그리고 해방후 만경봉에 오르시여 평양쪽을 바라보시며 장군님께서는 앞으로 10층, 20층, 50층, 100층짜리 집도 짓고 만경봉에서 평양까지 무지개다리를 놓아 사람들이 그것을 타고 훨훨 날아다니게 할 담대하고 통이 큰 궁냥을 하시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일단 시작한 일은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의 힘으로 끝장을 보고야마는 강의한 기질을 지니고계시였습니다.

어린시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스키타는 법을 익히시자 련습을 거듭하여 낭떠러지에서 날아내리는 동작을 끝내 완성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한없이 검박하고 소박하며 겸손한 품성과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고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유치원과 학교에 다니실 때에 남들과 같이 언제나 면양말에 고무신이나 운동화를 신고 걸어다니시였습니다.

옷도 남들이 입는 수수한 옷을 입으시고 동무들과 꼭같이 책보를 들고다니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동무들과 함께 놀고 공부하는것을 제일 좋아하였습니다. 새 책을 구했을 때에도 동무들과 같이 나누어보았으며 색다른 음식이 생겼을 때에도 동무들과 같이 나누어먹었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아무리 귀중한것이라도 서슴없이 넘겨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동무들에게 따발총을 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언제인가 한 일군이 어리신 장군님께 멋진 놀이감따발총을 사다드렸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기쁨을 감추지 못해하시며

어머님께 동무들과 미국놈쏘기놀음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밖으로 달려나가시였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빈손으로 들어오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놀라시며 따발총을 어떻게 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러자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이 다 부러워하기에 모두 함께 가지고 놀라고 주었다고 말씀드리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동무들에게 도마도를 나누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따발총과 도마도만이 아니라 집에 놀러온 아이들에게 자신의 옷도 입혀주시고 여러가지 놀이감도 서슴없이 안겨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 동무들이 당하는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동무들의 기쁨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자전거경기에서 넘어진 동무를 일으켜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주체37(1948)년 6월 1일 도산리유치원에서는 국제아동절기념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자전거선수로 나가시였습니다.

맨 앞장에서 달리시던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뒤따르던 동

무가 넘어진것을 보시고 자전거를 세우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넘어진 동무를 일으켜주신 다음 달리기를 계속하시여 만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린시절부터 지니신 남달리 뛰여난 이러한 천품은 그이께서 일찌기 위대한 혁명가, 걸출한 령도자로서의 품격을 완벽하게 갖출수 있게 한 고귀한 바탕으로 되였습니다.

제 5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 부모님의 혁명적교양과 영향을 받으시며 성장하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어린시절에 위대한 부모님의 혁명적이며 세심한 교양과 영향을 받으시며 자라나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부모님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리실 때부터 부모님들의 혁명적이며 세심한 교양을 받으시며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 큰 뜻을 키우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아버님의 세심한 교양에 의하여 어려서부터 열렬한 애국심과 높은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지니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만경봉에서 아버님으로부터 혁명적교양을 받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아버님으로부터 할아버님께서 지니셨던 지원의 높은 뜻과 대대로 나라와 혁명에 몸바쳐온 만경대혁명일가분들, 항일혁명선렬들과 아동단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린 가슴속에 고귀한 혁명정신을 키우시였고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 결심을 굳게 다지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아버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농민들의 농사일을 헐하게 해주시려고 결심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주체35(1946)년 어느날 어리신 장군님께서 아버지대원수님을 모시고 평안남도 대동군의 한 농촌에 나가시였을 때였습니다.

그때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용드레로 힘들게 물을 푸는 농민들을 보시면서 기계로 농사를 지을 앞날의 농촌에 대하여 생각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특히 어머님으로부터 혁명적교양과 영향을 많이 받으

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님께서는 늘 너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장군님을 더 잘 모시고 장군님의 말씀을 더 잘 받들어나가겠는가, 오직 이 한가지 생각만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백두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일찍부터 어리신 장군님께 만경대와 백두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 들려주신 만경대와 백두산은 어리신 장군님께 있어서 귀중한 보금자리였고 꿈결에도 찾아와 정다운 노래와 기쁨을 안겨주는 조국의 품이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위대한 부모님의 뛰여난 사격술을 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어머님께서 통일의 념원을 담아 삼일포에 울리신 총소리는 어리신 장군님의 가슴속에 영원히 잊을수 없는 추억을 남기시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 드릴 장군복이 완성되였을 때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드님께 장군복에 담겨진 항일혁명투사들과 인민들의 념원을 알려주시면서 이 군복을 입고 우리 나라를 튼튼히 지키겠다는 굳은 마음을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신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어머니, 저는 꼭 아버지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나라의 용감한 장군이 되겠어요.》라고 대답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보통강개수공사장에서 어머님의 일손을 도우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자주 어머님과 함께 보통강개수공사장에 나가시여 어머님의 일손을 도우시였으며 평양 미림벌에 나가시여서는 모내기를 하는 농민들의 일손을 도와 모춤도 나르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현실에 대한 체험을 통하여 남다른 자질과 성품을 더욱 훌륭히 키워나가시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항일대전의 총포성과 백두산의 눈보라소리를 자장가로 들으시며 생활의 첫자욱을 떼시였고 항일혁명투사들속에서 성장하시면서 어려서부터 대바르고 배짱이 센 품성을 키우시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항일의 그 나날에 벌써 총다루는 방법을 배우시였고 총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아버님의 현지지도의 길을 따라 걸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해방후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단 하루의 휴식도 없이 정력적으로 일하시는 아버지대원수님의 숭고한 풍모를 매일같이 보시면서 대원수님께서 계시여 조국과 인민의 찬란한 미래가 약속되여있음을 깊이 느끼시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대원수님을 따라 여러 도시와 농촌, 어촌들에 나가시여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선 인민들의 힘찬 투쟁모습을 보시면서 대원수님을 따르는 인민들의 열의가 얼마나 드높은가 하는것을 온몸으로 느끼시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이 력사의 나날에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칠 마음을 굳게 다지시였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 부모님의 혁명적교양과 영향, 조선혁명의 준엄한 나날들을 직접 체험하시면서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시였습니다.

제 6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아버지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조선을 제일로 빛내여나가실 큰뜻을 키우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어린시절부터 아버지대원수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조선을 제일로 빛내여나가실 큰뜻을 키우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아버지대원수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대원수님의 안녕과 건강을 위하여 힘쓰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아버지대원수님을 한가정의 아버님으로뿐아니라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였습니다.

해방후 어느날이였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의 몸가까이에서 일하는 한 일군으로부터 지금 전국각지에서 인민들이 대원수님께 매일과 같이 수많은 감사편지를 보내여오고있다는 말을 들으신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어머님께 아버님께서는 태양과

같은분이시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앞으로 영원히 아버지대원수님을 잘 모시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그러하셨기에 글을 써도 《**김일성**장군 만세!》부터 쓰시고 노래를 불러도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제일 즐겨부르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 아버지대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무척 애쓰시였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 은방울꽃을 좋아하신다는것을 아시고 철을 앞당겨 피워 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대원수님께 드리신 이야기, 아버지대원수님께서 딸기를 좋아하신다는것을 아시고 겨울철에도 아버님께 향기로운 딸기즙을 대접하시려고 애쓰신 이야기들은 어리신 장군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지극하시였는가를 길이 전해주고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대원수님의 안녕과 건강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습니다.

해방후 비바람이 세차게 불던 어느날 밤이였습니다.

잠에서 깨신 어리신 장군님께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어머님의 찬 손을 잡으시고 어디 갔다오시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날씨가 사나와서 집주변을 돌아보고 들어온다고 대답하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밤이 계속되여 더는 같은 대답을 할수 없

게 된 어머님께서는 아드님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며 《어머니는 아버님을 보위하는 경위대원이란다.》라고 말씀해주시였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을 마음속깊이 새기신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다음날 저택 정문에 나가시여 나무총을 들고 차렷자세로 서계시였습니다.

이러한 아드님을 보신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왜 그렇게 서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러자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나도 아버님을 보위하는 경위대원이예요.》**라고 대답하시였습니다.

그날부터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스스로 맡아나선 《경위대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시였습니다.

보초병과 함께 정문에서 아버님을 바래워드리고 마중하여드리시는것은 물론이고 정원을 오가시거나 군사놀이를 하실 때에도 주변에 이상한것이 없는가 하는것을 세심히 살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아버님께서 다니시는 길에 모래를 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어머님과 함께 아버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들추지 않도록 집으로 오가는 길에 모래를 펴기도 하시고 무더운 여름날에는 물을 뿌리기도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대원수님께서 계시는 침실창가에 쑥불을 피워 모기떼를 쫓아버리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아버님께 드릴 새털베개를 마련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주체36(1947)년 봄 어느날 어머님께서 아버지대원수님께 드릴 새털베개를 마련하시느라 애쓰시는것을 보시고 자신께서 키우시던 새에서 보드라운 털을 뽑아 어머님께 드리시였습니다.

그 한줌의 새털은 베개속을 채우기에는 너무나도 적은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대원수님의 건강을 바라시는 어리신 장군님의 그 마음은 그 어디에도 비길데가 없었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장대로 새들을 날리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어느날 이른새벽이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소란스럽게 들려오는 참새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여나시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발자국소리를 죽여가며 뒤뜰안으로 가시여 어머님의 따뜻한 손길이 그대로 느껴지는 긴 장대를 잡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아버지대원수님께서 다문 얼마간이라도 더 편히 주무시기를 바라시며 장대로 참새떼를 날려보내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부

터 조선을 제일로 빛내여나가실 큰뜻을 키워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는 언제나 아버지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들과 함께 조선을 제일로 빛내여나가겠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우리 나라를 빛내여나갈 큰뜻을 키우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우리 나라를 튼튼히 지킬 마음을 굳게 키우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아버님의 뜻을 이어나갈 마음을 다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에 군사놀이를 매우 즐겨하시였으며 부모님들과 항일혁명투사선생님들로부터 백두산에서 일제놈들을 쳐부시던 이야기를 듣는것을 제일 좋아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장군복》을 입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장군복을 입으시고 주체37(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열병식장에 나가시였습니다.

이날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드님께 우리 인민이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이 좋은 세상에서 잘살자면 인민군대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을 심중히 들으시던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빨리 커서 우리 인민군대를 세상에서 제일 센 군대로 만들어 우리 나라에 그 어떤 놈도 덤벼들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 인민들의 힘든 일을 덜어주실 큰뜻을 키우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실을 뽑는 누나들의 손이 트지 않게 해주시려고 생각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주체36(1947)년 4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어머님과 함께 평양제사공장(당시)을 찾으시였습니다.

그때는 나라가 갓 해방된 때여서 제사공장누나들의 일터는 그리 좋지 못하였습니다.

조사공누나들의 손은 뜨거운 물에서 고치를 다루느라고 온통 부풀고 터갈라져있었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힘들게 일하는 로동자들을 위해주고싶으신 생각을 금할수 없으시였습니다.

이날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댁에 돌아오셔서도 제사공장누나들의 터갈라진 손을 잊을수 없으시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주무시지 않고 아버지대원수님을 기다리시였습니다.

그날 밤이 퍽 깊어서야 댁에 돌아오신 아버님께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손이 트는데 바르는 약을 많이 구해달라고 청을 드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어려서부터 아버지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대원수님의 안녕과 건강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시였으며 조선을 제일로 빛내여나가실 큰뜻을 키워나가시였습니다.

제 7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 미제원쑤놈들을 쳐부실 신념과 열렬한 조국애를 깊이 간직하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해방전쟁시기 침략자 미제원쑤놈들을 쳐부실 신념과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간직하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원쑤놈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깊이 간직하시고 원쑤놈들을 쳐부실 신념을 더욱 굳히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는 전화의 불길속에서 사람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간직할수 없었던 가장 고귀한것을 체득할수 있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은 나의 생활에서 잊을수 없는 력사적시기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미제와 그 앞잡이놈들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일찌기 백두산에서 일제놈들을 쳐부시는 총포소리를 들으시며 성장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리신 나이에 미제와 판가리싸움을 벌리는 전쟁의 불길속을 또다시 헤쳐가게 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해방된 남반부의 도시와 마을을 찾아 오각별을 붙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아침저녁으로 최고사령부의 보도를 들으시면서 원쑤를 쳐부시는 통쾌한 마음으로 인민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남반부의 도시와 마을들을 찾아 지도에 오각별을 붙이시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 매일같이 별을 붙여나가시는 조선지도는 전선형편과 인민군대의 전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생동한 작전도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39(1950)년 10월 전략적일시적후퇴의 나날에 아버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사랑하는 동생을 데리시고 장자산으로 가시였습니다.

장자산으로 가시는 그 길은 일찌기 조국광복의 큰뜻을 품으시고 할아버님께서 걸으시고 아버님께서 걸으신 혁명의 천리길이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험한 천리길을 걸으시면서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모조리 짓밟으려는 미제원쑤놈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로 가슴불태우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미제원쑤놈들을 이 땅에서 몰아낼 굳은 결심을 다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미제날강도놈들의 야수적인 폭격으로 거리와 마을이 불타고 사람들이 피흘리며 쓰러지는 처참한 모습을 보시는 어리신 장군님의 가슴은 터질것만 같으시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두주먹을 부르쥐시며 어서 커서 철천지원쑤 미제승냥이놈들을 쳐없애야 하겠다고 굳게 마음 다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일행이 청천강을 지나 어느 한 산간마을에 머물렀을 때였습니다.

마침 날이 밝아 일행은 개울가에 자리를 잡고 밥통들을 꺼내여 아침식사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운전사는 손도끼를 찾아들고 야산에 올라 청솔가지도 꺾고 불 잘 붙는 가느다란 참나무들도 골라 찍으며 땔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때 삭정이를 주으시다가 도끼소리를 들으신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시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운전사의 팔을 붙드시며 성한 나무는 왜 찍나요, 후퇴를 한다고 해서 그럽니까, 이 땅을 우리가 적들에게 내주는것으로 생각합니까, 어림도 없어요라고 하시면서 《이 귀중한 땅과 이 귀중한 숲은 영원히 우리의것으로 남아있을거예요.》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장자산에 계

시면서 승리한 조국의 앞날에 대한 굳은 신념을 지니시고 나무 한그루라도 더 심고 물고기 한마리라도 귀중히 여기시고 보호하기 위해 힘쓰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발자취가 어린 장자산혁명사적지부감도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장자산에 머물러계신 20여일간은 나라를 열렬히 사랑하고 전쟁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가슴불태우신 뜻깊은 나날이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아버지대원수님께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이끄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굳은 신념을 간직하시였습니다.

그러기에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미국놈들을 때려부시는 마음으로 공부도 군사놀이도 열심히 하시였으며 조국의 자연풍치도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늘 마음쓰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군사놀이를 지휘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동생과 함께 잣나무를 심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당창건 5돐이 되는 10월 10일이였습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랑하는 동생과 함께

장자산기슭에 두그루의 잣나무를 심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국놈들이 한그루의 나무를 불태우면 열그루, 백그루의 나무를 심어 조국의 산과 들을 더욱 푸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나무가 푸르싱싱 자랄 때 우리 나라는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로 될것이라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장자산으로 오르시거나 내려오시는 길에서 나무뿌리 하나라도 드러난것을 보시면 흙을 덮어주시고 시내가의 물고기 한마리도 귀중히 여기시였습니다.

어느날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장자산에서 내려오시다가 물고기잡이를 하는 아이들을 보시고 지금 미국놈들이 마구 폭탄을 퍼부어서 우리 나라 강에 있는 숱한 물고기들이 죽고있는데 우리까지 이렇게 작은 물고기들을 잡으면 되겠는가고 하시면서 아이들이 막았던 동도 터치고 작은 물고기도 놓아주게 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장자산혁명사적지를 참관하는 학생소년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온 강산이 불타던 그 어려운 시기에 승리한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시며 장자산에서 조국의 나무 한그루, 물고기 한마리도 귀중히 여기고 정성껏 보호하시였습니다.

제 8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학생들속에서 아버지대원수님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학생들속에서 아버지대원수님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수많은 사변들을 직접 보고 겪으시면서 아버지대원수님께서 계시여 조국이 있고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1(1952)년 6월 평안북도를 현지지도하시는 아버지대원수님을 모시고 여러곳을 돌아보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인민군 비행구분대를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신의주시에서 미국놈의 비행기들과 용감하게 싸우는 인민군비행사들의 투쟁모습도 보시고 락원의 10명 당원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시였으며 전시식량증산을 위하여 일떠선 농민들과 전선원호사업에 떨쳐나선 학생들의 미더운 모습도 보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주체41(1952)년 여름 최고사령부에 계시면서 전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는 아버지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대원수님의 고매한 풍모를 직접 보시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사령부작전실에 자주 가시여 많은것을 배우시였으며 인민군부대를 현지지도하시는 아버지대원수님을 따라다니시면서 대원수님의 탁월한 령군술을 가슴에 새기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전쟁의 준엄한 현실을 실지 보고 겪으시면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은 전적으로 아버지대원수님께 달려있으며 대원수님께서 계시여 전쟁의 승리와 래일의 번영이 마련되여가고있다는것을 심장으로 체득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안팎의 원쑤들의 공격으로부터 아버지대원수님을 견결히 옹위하고 더 잘 모셔야 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는 장군님께서 주체41(1952)년 8월에 창작하신 고전적명작 **《조국의 품》** 그리고 주체42(1953)년 6월 아버지대원수님께 올리신 편지와 고전적명작 **《축복의 노래》**, 일기 **《모란봉은 불타지 않았다》**에 뜨겁게 담겨져있습니다.

○ 이 사진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해방전쟁시기 아버지대원수님께 올리신 편지와 고전적명작들인 《축복의 노래》와 《조국의 품》, 《모란봉은 불타지 않았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가요와 편지, 일기들에 조국의 품은 곧 아버지대원수님의 품이며 대원수님의 안녕은 전체 조선인민의 행복이고 대원수님을 잘 모시고 옹호보위하여야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구원될수 있다는 깊은 뜻을 담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장자산에 계시면서 학습에 열중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습도 생활도 전투적으로 하라고 하신 아버지대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분초를 아껴가며 열심히 공부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그처럼 어려운 전쟁시기에도 한해동안에 두 학년에서 배울 내용을 완전히 익히시였습니다.

어느날 한 일군이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건강이 걱정되여 어서 주무셔야겠다고 말씀올렸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이 깊은 밤에도 미국놈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전선을 지휘하고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일찌기 잘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버님처럼 훌륭한 일군이 되라고 하신 어머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

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학생소년들속에서 아버지대원수님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1(1952)년 11월 만경대혁명학원에 편입하여 공부하시면서 학생소년들속에서 아버지대원수님을 따라배우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김일성**장군략전연구소조를 뭇고 장군님께서 걸으시는 포연자욱한 전선길을 생각하면서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모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원안에 아버지대원수님을 따라배우는 연구소조를 내올것을 발기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준비사업으로서 먼저 학생소년들속에서 아버지대원수님을 따라배우기 위한 학습분위기부터 세우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김일성**장군의 략전내용을 해설해주기도 하시고 연구토론회도 자주 조직하시였으며 소조의 목적도 밝히시였습니다.

이러한 준비사업에 기초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2(1953)년 2월 10일 학급소년단원들의 모임에서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를 결성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를 결성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략전연구소조의 목적은 아버지대원수님의 혁명력사학습을 통하여 학원학생들을 대원수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조선혁명의 기둥으로 준비시키는것이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결성하신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는 아버지대원수님의 혁명사상과 혁명업적, 고매한 덕성을 따라배우는 첫 혁명력사연구소조였습니다.

이때로부터 우리 나라에서 아버지대원수님의 혁명력사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사업이 시작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략전연구소조는 점차 학원의 모든 학급들에 조직되여 운영되게 되였으며 아버지대원수님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은 날을 따라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되여나갔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원생활은 나에게 있어서 참으로 보람차고 뜻깊은 나날이였다. 우리가 학원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학습하고 생활하던 그 나날을 나는 언제나 잊지 않을것이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이야기를 들려

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아버지대원수님의 위대성으로 교양하고 그들을 대원수님께 충직한 아들딸로 키우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조활동의 경험과 업적은 그후 아버지대원수님을 따라배우는 사업을 심화시켜나가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습니다.

○ 여기에 있는 이 구호 《아버지원수님의 어린시절을 따라배우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43(1954)년에 있은 분단총회에서 내놓으신 구호입니다.

온 나라 학생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이 구호를 높이 들고 아버지대원수님의 어린시절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대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아들딸로,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억세게 준비해나갔습니다.

제 9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학생들이 학습에 열중하도록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구호를 내놓으시고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이끄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소학교시절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 이 사진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공부하시던 삼석소학교와 평양제4소학교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구호를 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습은 학생들의 기본임무입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습을 잘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임무는 없습니다.》

만경대혁명학원에서 공부하시던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혁명과 건설에 쓸모있는 산지식을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실 불타는 마음을 안으시고 조선의 지리와 력사를 비롯하여 모든 학과목들을 깊이 배워나가시였습니다.

그런데 학원의 일부 학생들속에서는 학습에 대한 옳은 태도가 부족한데로부터 학습을 게을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있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슴은 아프시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앞날의 조선을 위하여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2(1953)년 1월 22일에 열린 제3분단총회에서 올해는 **김일성**장군님께서 12살의 어리신 나이에 제 나라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신 아버님의 말씀을 받들고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신지 30돐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말씀하시면서 30년전 수령님께서 지니셨던 원대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조선의 참된 아들딸로 억세게 준비하기 위하여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구호밑에 학습을 더 잘해나가자고 힘있게 호소하시였습니다.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이 구호에는 모든 학생들이 쓸모있는 산지식을 더 많이 배워 아버지대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을 더욱 빛내여나갈데 대한 깊은 뜻이 담겨져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만경대혁명학원시기에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여 학생들이 학습하는 목적을 똑똑히 알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모든 학생들이 학습에 열중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소년단원들의 학습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열심히 학습하여 우리 혁명에 써먹을 수 있는 풍부한 지식을 가진 일군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 학생소년들을 학습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습전투를 힘있게 벌리기 위한 학급모임에서 싸우는 조선의 소년단원인 우리에게 있어서 학습은 곧 전투이다, 원쑤와 싸워이기기 위하여, 부모의 원쑤를 갚기 위하여 모두다 최우등생이 되자, 모두다 5점의 총창으로 조국과 부모의 원쑤를 갚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호소에 따라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은 학습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습에서 뒤떨어진 동무들을 잘 도와주도록 분단위원들을 깨우쳐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자신께서도 몇동무를 맡으시여 도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소년들이 학습준비를 잘 갖추며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그날 배운것은 그날로 다 알고 넘어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삼석소학교에 다니시던 주체42(1953)년 10월초 어느날이였습니다.

이날 거의 모든 학생들이 산수숙제를 하지 못하고 수업에 참가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개길 펑퍼짐한 잔디밭에 이르시자 학생들에게 여기서 숙제를 하고 집으로 가는것이 어떤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숙제를 제때에 하고나면 마음이 거뜬해지고 집에 돌아가 부모들의 바쁜 일손도 도와줄수 있다고 하시면서 학생들의 기본임무는 공부를 잘하는것이다, 공부를 잘하려면 그날에 배운것을 그날로 알고 넘어가야 한다, 그런데 동무들처럼 숙제를 하지 않아 배운것을 머리에 익히지 않아서야 되겠는가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학생들은 그후부터 숙제를 어김없이 꼭꼭 해오군 하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쓰시던 학습장과 책보입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당번을 서실 때 손수 불을 지피신 난로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소학교시절에 다른 학생들과 자그마한 간격과 차이도 없이 소박하게 생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보통학생들과 같이 보자기에 책을 싸가지고 다니시였으며 학습장도 수수한것을 쓰시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하시면서 다른 학생들과 꼭같이 난로당번도 서시였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소학교시절에 학습과 생활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이시면서 학생소년들이 학습에 열중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제 10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소년단원들이 조직생활을 잘하도록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소년단원들이 조직생활을 잘하여 아버지대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된 아들딸로 튼튼히 준비하도록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시기에 만경대혁명학원, 삼석소학교, 평양제4소학교에서 공부하시면서 학생소년들이 조직생활을 잘하여

아버지대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된 아들딸로 튼튼히 준비해나가도록 이끄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소년단 분단위원장사업을 하시던 때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주체43(1954)년 2월초 평양제4소학교 제1분단동무들은 새 분단위원회를 선거하는 분단총회를 열고 전체 소년단원들의 한결같은 의사에 따라 위대한 장군님을 분단위원장으로 선거하였습니다.

소년단원들의 열광적인 박수를 받으며 교단에 나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의 믿음을 언제나 잊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항일아동단원들의 혁명정신을 본받아 아버지대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된 아들이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분단위원장으로 모신것은 조선소년단과 소년단원들이 받아안은 가장 큰 영광이며 더없는 자랑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소년단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 큰힘을 넣으시여 그들모두를 아버지대원수님의 참된 아들딸로 억세게 준비시키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소년단조직들은 모든 소년단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아들딸로 키우며 그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 세우는것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소년단사업에서 기본은 소년단원들을 아버지대원수님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대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 당의 참된 후비대로 튼튼히 키우는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에 의하여 소년단사업의 중심방향이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 소년단원들이 아버지대원수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간직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아버지대원수님의 탄생기념일에 평양제4소학교 소년단원일동의 이름으로 대원수님의 안녕과 건강을 축원하는 글을 새긴 축기를 올릴것을 발기하시고 축기를 정성껏 준비하여 대원수님께 드리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지도밑에 평양제4소학교 학생들이 아버지대원수님께 올린 축기입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축기를 받으시고 학생대표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공부를 잘하라고 고무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시 **《우리 교실》**을 지으시여 아버지대원수님을 높이 모신 끝없는 행복과 자랑을 소

년단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소학교시절에 지으신 동시 《우리 교실》입니다.

소년단원들은 이 동시를 즐겨읊으며 아버지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끝없이 따랐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소년단원들이 소년단조직생활을 잘해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소년단조직생활은 소년단원들을 사상의지적으로 단련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누구든지 소년단조직생활을 잘하여야 당의 후비대인 민청원으로 훌륭히 자라날수 있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소년단 분단모임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소년단원들이 분단조직에 대한 옳은 생각을 가지고 귀중히 여기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주체42(1953)년 1월 어느날 숫눈길을 헤치며 분단모임장소로 달려오신 위대한 장군님께 한 동무가 눈이 많이

내려 길이 막혔는데 분단모임에 한번쯤이야 빠질수 있지 않는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을 둘러보시며 모임에 오고싶으면 오고 오지 못하면 말고 해서야 되겠는가, 소년단서약을 하고 조직에 든 이상 우리는 조직의 몸이다, 우리는 조직을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 자기를 생각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조직의 귀중함을 깨우쳐주시였을뿐아니라 소년단넥타이를 주머니에 넣고다니는 학생을 보시고는 붉은넥타이는 걸치레가 아니라 조선소년단원들의 영예로운 상징이라고 하시면서 붉은넥타이에 담겨진 깊은 뜻을 차근차근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소년단원들에게 분공도 수시로 주시고 사회정치활동과 여러가지 좋은일하기운동도 널리 조직하시여 분단이 늘 활발히 움직이도록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전사자유가족을 도와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유가족들을 돕는것을 분단위원회의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우시였습니다.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무들과 함께 한 전사자유가족할머니의 집을 찾으시여 무너진 담장도 쌓고 굴뚝도 다시 세우시였으며 땔나무도 해드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런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속에서 소년단원들은 아버지대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아들딸로 튼튼히 자라나게 되였습니다.

제 11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학생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고 학습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도록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학생소년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고 학습에서 주체를 세우도록 이끄시여 그들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억세게 키우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3(1954)년 9월부터 평양제1중학교에서 공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한편 학생소년들을 아버지대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앞날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중학교시절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학생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전통교양을 아버지대원수님의 혁명활동을 따라배우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혁명전통교양에서 기본은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활동을 따라배우도록 하는것입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7(1958)년 9월과 주체48(1959)년 4월 학생들에게 아버지대원수님의 혁명활동력사를 따라배우는것은 혁명전통교양에서 기본핵이라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학생소년들에 대한 혁명전통교양에서 중심이 밝혀지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소년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힘있게 벌려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답사를 통한 교양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4(1955)년 4월 만경대와 칠골혁명사적지에 대한 참관사업을 조직하시고 주체45(1956)년 5월말에는 백두산지구의 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를 진행할것을 발기하시였습니다.

종파놈들은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려행길이라느니, 명승

지를 견학시키는것이 좋다느니 하면서 혁명전적지답사를 어떻게 하나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종파놈들의 책동을 물리치시고 주체45(1956)년 6월초에 보천보, 삼지연, 리명수 등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행군을 조직하시였습니다.

이 로정도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6월 5일부터 14일까지 평양제1중학교 학생들로 무어진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오를 이끄시고 보천보와 삼지연, 리명수일대에 있는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행군을 진행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혁명전적지답사대오를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이 답사행군은 우리 나라에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의의깊은 답사행군이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자료들과 문학예술작품을 통한 혁명전통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혁명전통교양에 리용하신 회상실기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소년들속에서 《항일빨찌산참

가자들의 회상기》를 널리 학습하도록 하시면서 그에 대한 시범연구발표모임을 조직하시고 그 경험을 온 학교에 일반화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보천보전투승리 18돐을 맞으며 주체44(1955)년 6월에 모란봉에서 우등불모임을 조직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도하신 모란봉우등불모임장소와 평양제1중학교에 대한 《소년신문》 보도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예술소조활동과 예술작품감상을 통한 혁명전통교양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혁명전통주제의 예술작품을 만들어 공연하도록 하시였으며 혁명가요합창경연도 조직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전통교양을 학습과 생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일하며 배우며 살자!**》라는 구호밑에 학생소년들이 학습과 생활에서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학생소년들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항일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데 앞장서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학생소년들이 학습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도록 이끄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공부하시던 평양제1중학교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제1중학교에서 공부하시면서 학생들이 학과학습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도록 적극 힘쓰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5(1956)년말 학생들에게 지금 교과서들에는 다른 나라의것을 본딴것이 많은것만큼 우리 혁명과 건설에 써먹을수 있는 지식을 소유하려면 그것을 기계적으로 따를것이 아니라 주체성있게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6(1957)년 9월 13일 평양제1중학교 민청초급단체총회에서 하신 결론에서 《우리의것을 더 잘 배우고 빛내이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학습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소년들이 우리 당 정책과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우리 나라의 력사, 문화, 지리, 미풍량속 등 우리의것을 열심히 배우면서 다른 나라의것을 우리 혁명과 건설에 써먹을수 있게 소화하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소년들이 과외활동에서도 주체를

철저히 세우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소년들속에서 여러가지 과외연구소조를 무으시고 그들이 식물을 하나 연구해도 우리 나라의 식물을 연구하고 기술을 하나 배워도 우리 나라의것, 우리의 실정에 맞는것을 연구하고 배우도록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화학실험실에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학습하시던 모란봉학습터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소년들이 과외활동에서 또한 다른 나라의 춤과 노래와 그림을 좋아하는 사대주의적 관점을 버리고 우리의 춤과 노래와 그림을 더 잘 배우고 익히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소년들을 이끄시고 공장, 농촌들에 자주 나가시여 그들이 우리의 현실을 잘 알고 현실속에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튼튼히 다져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황철의 용해공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소년들이 현실속에서 과학

과 기술을 배우도록 이끄시였으며 실험, 실습을 강화하여 그들이 제 손으로 자동차도 몰아보고 전동기도 수리하면서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배우게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생산실습에 참가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학생소년들속에서는 학습에서 주체가 철저히 서게 되였습니다.

제 12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학생들속에서 당적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학생소년들속에서 종파주의를 반대하고 당적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리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동생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학교시절에 소년단, 민청사업을 지도하시면서 학생소년들속에서 당적사상체계를 세우기 위

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당적사상체계란 곧 아버지대원수님의 사상체계입니다.

당적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아버지대원수님의 뜻대로 혁명과 건설이 진행될수 있습니다.

당적사상체계를 세우는 문제는 특히 종파놈들의 책동이 우심했던 1950년대 중엽에 들어와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섰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학생소년들속에서 아버지대원수님의 혁명사상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늘 학생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대원수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과 어긋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서하지 말고 견결히 투쟁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반당종파분자들의 책동을 폭로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주체45(1956)년 5월 당시 교장을 하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는 제1차 5개년계획의 전망에 대한 강연을 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당정책을 헐뜯었습니다. 그자는 아버지대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는 다르게 락후한 우리 나라에서는 필요한 기계설비를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자리에서 우리 나라에서 자동차

나 뜨락또르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것은 아버지대원수님의 사상과 어긋난다고 하시면서 그놈의 수작질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강연회가 있은 후 학생들에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오직 대원수님의 사상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그해 6월에 향토사연구만을 내세우면서 지방주의를 퍼뜨리는 종파놈들의 책동을 짓부셔버리고 항일의 혁명전통을 따라배울데 대한 아버지대원수님의 사상을 견결히 지키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꾸준한 교양과 원칙적인 투쟁에 의하여 당정책관철을 방해하던 종파분자들의 교활하고 음흉한 책동은 여지없이 부서지고 학교안에 아버지대원수님의 혁명사상만이 꽉 차넘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학생들속에서 종파의 여독을 청산하고 당적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청원들에게 종파란 무엇이며 그놈들이 어떻게 나쁜짓을 했는가, 종파를 청산한 우리 당의 조치가 왜 정당한가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민청원들속에 당적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민청단체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청년들속에서 당적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자!〉, 이것이 현시기 당의

요구이며 민청원들앞에 나서는 첫째가는 임무입니다.》

○ 이 사진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학생들속에서 당적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발표하신 연설문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7(1958)년 9월 《**청년들속에서 당적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자!**》라는 혁명적구호를 내놓으시고 학생들속에서 당적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속에서 당정책교양을 더욱 힘있게 벌려 그들을 아버지대원수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교에 조선로동당력사연구실을 잘 꾸리고 그것을 거점으로 학생들이 아버지대원수님의 혁명활동력사를 더 잘 배우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활동연구모임에 참가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학생들을 이끄시고 여러차례 찾으셨던 국립중앙해방투쟁박물관(당시)이며 이 사진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으셨던 리수복영웅의 집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끄심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이 심화됨으로써 학생들속에서 당적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게 되였습니다.

제 13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학교민청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도록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학교민청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교민청사업을 책임지고 지도하시면서 민청사업을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민청열성자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민청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용하시던 책상과 걸상을 비롯한 비품들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학교민청단체의 임무를 새롭게 밝혀주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민청총회에

서 하신 연설원고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모든 민청원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로, 지식있고 능력있는 믿음직한 사회주의건설자로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학교민청위원회의 임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교민청단체의 기본임무는 민청원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로, 지식있고 능력있는 믿음직한 사회주의건설자로 키우는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교민청위원회앞에 나선 기본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 민청단체들이 민청원들에 대한 사상교양과 동맹생활지도, 학습과 소년단사업에 대한 지도의 4가지 과업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학교민청사업을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교민청위원회와 민청초급단체위원회를 잘 꾸리고 위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게 하시여 동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에서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청조직들이 학생청년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청은 사상교양단체인것만큼 사상사업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려야 하며 모든 문제를 교양의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민청원들을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정책,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것은 민청단체들이 사상교양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주선이라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상교양사업은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게 연구토론회, 감상발표모임, 해설모임, 웅변대회, 이야기모임, 우등불모임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영화감상모임을 조직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8(1959)년부터 학생청년들속에서 부정을 폭로비판하는 교양방법으로부터 긍정을 적극 찾아 널리 소개선전하고 일반화하는 교양방법으로 사상교양사업을 전환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조하신 사상교양의 새로운 형식과 참신한 방법은 민청사업의 힘을 돋구고 동맹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청조직들이 민청원들의 동맹생활지도를 잘하도록 하시였습니다.

당시 민청조직의 동맹생활지도에서 나타나고있던 중

요한 결함은 학생청년들의 학과실력을 높이는데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는것이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청원들이 학습을 잘하도록 지도하는것이 민청단체의 중요한 임무이며 동맹생활지도의 기본으로 된다는것을 일깨워주시고 민청원들의 학습열의를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도를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청원들에게 청년시절에는 학습에 모든 정열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산모범을 보여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학교민청단체들에서는 학습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그것을 동맹생활과 밀접히 결부하여 밀고나가게 되였으며 민청원들속에서 학습을 열심히 하는 기풍이 서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청조직들이 민청원들속에서 자각적인 조직생활기풍을 세우는데 큰 힘을 넣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청단체들이 동맹원들에게 분공을 빠짐없이 주고 그 수행을 적극 도와주게 하시였으며 동맹원들속에서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평양남산고급중학교시기 민청원들을 교양하신 곳을 찍은 사진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청회의들에 참석하시여 원칙적비판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회의가 강한 비판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한편 민청원들속에 들어가시여 비판에 대한 생각을 바로 가지고 잘못을 제때에 고칠데 대하여 일깨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민청조직들이 학생들의 과외활동을 그들의 특성에 맞게 조직하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청이 소년단사업을 책임적으로 지도하는 새로운 체계를 세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6(1957)년 겨울방학기간에 민청원들을 소년단분단들에 내려보내여 소년단원들의 학습과 과외생활지도에서 좋은 경험을 창조하게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그해 2월에 상급학년의 준비된 민청원들이 분단지도원들의 사업을 도와 소년단분단을 맡아 지도하는 새로운 사업체계로서 보조분단지도원제를 내오도록 하시였습니다.

보조분단지도원제는 소년단원들뿐아니라 민청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고 소년단조직들을 산조직으로 꾸리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민청사업은 지난날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참신하고 힘있게 진행되였으며 자기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게 되였습니다.

제 14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학생청년들을 사회주의건설투쟁에 적극 참가하도록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학생청년들을 사회주의건설의 보람찬 투쟁에 적극 참가시켜 혁명적으로 단련시키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남산고급중학교시절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학생청년들이 아버지대원수님의 뜻을 높이 받들어 수도건설에 떨쳐나 자신을 튼튼히 단련하도록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평양대극장모형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혁명의 수도 평양을 웅장화려하게 건설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속에서 자신을 튼튼히 단련함으로써 당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철저히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청년들을 수도건설에 적극 참가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에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 회의와 모임들에서 수도건설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해설해주시고 그들이 아버지대원수님의 원대한 수도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될데 대하여 열렬히 호소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수도건설에 몸소 참가하시여 학생청년들이 로력적위훈을 세우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부르심따라 평양시 2만세대 주택건설에 참가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7(1958)년 5월초부터 6월중순까지 근 40일간 몸소 학생들을 이끄시고 부재생산전투장에 나가시여 일하시면서 그들이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심으로써 2만세대 살림집건설에 크게 기여하시였습니다.

또한 대동강호안공사와 평양학생소년궁전건설에 참가하시여 학생청년들을 로력적위훈에로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도건설에 참가하신 전기간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을 맡아하시였으며 깊은 밤에도 쉬지 않

으시고 작업장에 나가시여 다음날 작업준비를 빈틈없이 해놓군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은 학생청년들의 빛나는 거울로 되였습니다.

학생청년들은 보람찬 로동의 나날에 구슬땀을 흘리며 난관을 이겨내는 강의한 의지와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힘껏 일하려는 정신을 키웠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학생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에 도움을 주는 여러가지 좋은일하기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광범한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장에 적극 진출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 도움을 주는 여러가지 좋은일하기운동에 학생청소년들이 적극 참가하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후복구건설의 첫시기에 소년단원들속에서 벽돌모으기운동을 벌린 경험을 살려 《소년》호기중기를 만들어 수도의 살림집건설장에 보내주기위한 운동을 벌리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주체46(1957)년 2월부터 소년단원들속에서 꼬마5개년계획활동도 적극 벌리여 사회주의건설에 커다란 도움을 주도록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순안농장 벼가을을 도우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내기철과 가을철에는 학생들을 이끄시고 순안농장에 나가시여 농장원들의 일손을 힘껏 도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장에 적극 나가 로력적위훈을 세우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7(1958)년 5월에 민청중앙위원회 일군에게 청년들은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새로운 문제를 발기하고 세상을 들었다놓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면서 살아야 사는 보람이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민청단체들이 청년들을 발전소나 철도건설장 같은 어렵고 긴요한 건설장들에 대중적으로 진출시키기 위한 사업을 조직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평양시복구건설에 동원된 평양제1중학교 학생들과 해주－하성사이 철길공사장으로 떠나는 청년들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옳바른 이끄심속에서 학생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보람찬 투쟁에 적극 참가하여 혁명적으로 단련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제 15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학생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대학생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 유능한 혁명인재로 튼튼히 준비시키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9(1960)년 9월 1일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에 입학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대학시절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 이 사진이 **김일성**종합대학 본관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룡남산마루에 오르시여 아버지대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실 확고한 결의를 고전적명작 《조선아 너를 빛내리》에 담으시였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과학탐구에 모든 정력을 기울이시면서 대학생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선 유능한 혁명인재로 준비시키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대학생들속에서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는 문제가 우리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여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대학생들속에서 당적사상체계를 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정치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대학생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대원수님에 대한 충실성교양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에게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지위와 결정적역할에 대하여 말씀해주시면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대원수님의 위대성을 폭넓고 깊이있게 해설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0(1961)년 5월 대학생들에게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손수 지으신 고전적명작 《**축복의 노래**》를 들려주시면서 아버지대원수님에 대한 뜨거운 흠모심을 안겨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주체51(1962)년 4월에 진행된 조선인민군창건 30돐경축 열병식을 비롯하여 아버지대원수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행사에 참가할 때마다 대원수님을 받들어모시는 혁명전사의 자세와 립장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실지 행동으로 보여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생들을 아버지대원수님의 혁명사상과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생들이 1～2학년기간에는 《**김일성**선집》에 들어있는 로작들을 다 연구발취하며 3～4학년때에는 다시 반복하여 학습하는 체계를 세우고 그에 맞게 학년별 학습목표와 계획을 세우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로작학습정형을 수시로 알아보시면서 원문에 철저히 의거하여 그 내용을 원리적으로 깊이 파고들어 실속있게 하도록 적극 도와주고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대학생들이 높은 과학지식을 소유하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생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

우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생들의 기본임무는 공부를 잘 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대학생들이 배우고 또 배워 조선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혁명인재로 튼튼히 준비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0(1961)년 3월 만페지책읽기운동을 발기하시고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만페지책읽기운동은 아버지대원수님의 로작들을 넓고 깊이 학습하기 위한 운동이며 여러 분야의 책들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깊이 읽기 위한 대중적인 책읽기운동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생들이 리론과 실천을 겸비한 혁명인재로 준비해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생산실습생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0(1961)년 4월 21일부터 5월 8일까지 평양방직기계제작소(오늘의 평양방직기계공장)에서 진행된 생산실습에 참가하시여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대학생들을 이끌어주시고 공장로동자들을 모범기대창조운동에로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산실습하실 때 리용하신 26호선반을 참관하는 학생소년들입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와산동－룡성사이 도로확장공사에 동원된 대학생들과 군인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0(1961)년 5월중순부터 6월초에 걸쳐 와산동－룡성사이 도로확장공사에도 친히 참가하시여 제일 힘든 작업을 맡아하시면서 대학생들이 로동을 통하여 조직사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더욱 단련하도록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대학생들이 조직생활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단련하도록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민청초급일군들을 고무격려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숭고한 실천적모범으로 대학생들이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이끄시는 한편 민청초급일군들을 자주 만나시고 민청조직들이 민청원들의 조직생활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도록 세심히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대학생들을 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1(1962)년 8월중순부터 10월초까지 평양에서 동북쪽으로 60여리 떨어진 어은동에서 진행된 군사야영훈련에 참가하시여 다른 학생들과 꼭같이 훈련하고 생활하시면서 아버지대원수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군사사상과 전법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우리 나라의 실정과 현대전의 특성에 맞는 전투지휘능력과 령군술을 훌륭히 갖추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사야영을 진행하신 어은혁명사적지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주체적인 전법과 그것을 적용하는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전술훈련을 잘하여 실지 싸움에서 써먹을수 있는 풍부한 군사지식과 지휘능력을 습득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 벌리신 정력적인 활동과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대학생들은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되고 높은 과학지식과 혁명적인 실천능력, 군사기술을 소유한 주체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 유능한 혁명인재로 자라나게 되였습니다.

제 16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를 적극 보좌하시고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아버지대원수님의 혁명사업을 힘껏 도와드리시고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여 대원수님의 혁명사상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키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아버지대원수님의 령도를 적극 보좌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공직을 가지고있은것은 아니였지만 경애하는 수령님을 몸가까이에서 보좌해드리면서 전당적의의를 가지는 사업을 돌보았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사업과 중요정치행사가 아버지대원수님의 사상과 뜻대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힘쓰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대원수님을 모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가실 때마다 당조직들의 사업을 먼저 알아보시고 당조직들이 대원수님의 교시를 관철하는것을 중심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대원수님께서 내놓으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구현하여 당사업이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아버지대원수님의 령도를 잘 받들어드리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남포제련소를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대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을 다그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시 황철을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소들을 찾으시여 전면적자동화에로 빨리 넘어가기 위한 지름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리현리를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 농사를 기계화, 화학화하며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깊이 마음쓰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친필하신 삭주군의 경제실태자료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1(1962)년 7월 지방 당 및 경제일군 창성련석회의가 아버지대원수님의 구상과 의도대로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창성, 삭주군의 실태를 현지에서 미리 알아보시고 회의준비사업을 빈틈없이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대원수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우리의 문학예술과 출판보도사업, 체육사업 등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여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기 위한 아버지대원수님의 사업부담을 많이 덜어드리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인민군구분대를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대원수님께서 내놓으신 《**일당백**》의 혁명적구호가 철저히 관철되도록 이끄시여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2(1963)년 7월 한 비행구분대를 찾으시여 비행사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아버지대원수님께서 계시는 평양의 하늘을 지키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가슴마다에 수령결사옹위의 불씨를 심어주시였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종합대학시기에 아버지대원수님의 혁명사업을 적극 받들어드리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종합대학시기에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대원수님의 혁명사상을 옹호고수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대원수님의 혁명사상의 위대성을 정확히 밝히시는데 선차적주목을 돌리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위대성에 대하여 밝혀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대원수님의 혁명사상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밝히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주체의 혁명리론의 근본원리

들과 주체의 군사사상과 리론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나라 력사를 주체적립장에서 새롭게 평가하시면서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론》을 비판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학과론문 《삼국통일문제를 다시 검토할데 대하여》의 친필원고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3(1964)년 3월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을 발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고전적로작에서 사회주의건설에서 지역적거점을 설정하여야 할 필요성, 지역적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과 그것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학시절에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아버지대원수님의 혁명사상을 옹호고수하고 가일층 심화발전시키신것은 조선을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 쌓으신 불멸의 혁명업적입니다.

제 17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전당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시고 사회주의경제건설과 문학예술혁명을 힘있게 이끄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신 후 주체53(1964)년 4월 1일 당중앙위원회에 오시여 6월 19일부터 사업을 시작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당중앙위원회에 모신것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참으로 크나큰 영광이고 행복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

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반당수정주의분자들과 반당군벌주의자들을 폭로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1967년 5월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를 계기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 준비사업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주체56(1967)년 5월 4일부터 8일사이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에서는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죄행과 그 해독적후과를 철저히 폭로하고 그자들을 우리 당대렬에서 단호히 제거하였습니다.

이 전원회의준비사업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진행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인민군대안에서 딴꿈을 꾸는 반당군벌주의자들의 책동을 제때에 간파하시고 폭로분쇄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상을 밝고 정중하게 모실데 대하여 말씀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수령관을 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벌리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기 위한 투쟁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방도를 밝혀주시면서 전당적인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거점들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리도록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량강도일대의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시면서 그곳을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잘 꾸리며 그를 통한 교양사업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가르쳐주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진데 대하여 보여주는 자료들과 신문보도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서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수령님의 교시대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일대사상공세를 들이대도록 하시고 몸소 대중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황해제철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업부문에서 자립성을 강화하고 기술개건사업을 적극 밀고나가며 대안의 사업체계가 은을 나타내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업부문에서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

키며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예술에 화력을 집중하여 문학예술혁명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대원수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하신 고전적명작들인 《피바다》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를 영화로 옮기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여 대걸작으로 되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예술부문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가극, 연극, 문학분야에 고전적명작들을 옮기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그리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가극으로 창조하는 사업은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수행되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예술인들속에서 당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 말씀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부문사업을 지도하시면서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를 세워주시고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

에 일반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문학예술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되였습니다.

제 18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후계자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영명한 지도자로 높이 추대되시였다

이 판에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따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아버지대원수님의 후계자로 높이 추대되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가는데서 기본은 수령의 후계자를 옳바로 추대하는것입니다.

수령의 후계자는 대를 이어 계속되는 혁명투쟁을 령도하는 수령입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한 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수행되는 력사적위업입니다. 그런것만큼 수령의 후계자를 옳바로 내세워야 수령이 이룩해놓은 혁명위업을 끝까지 고수하고 수령의 뜻대로 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과 교훈은 혁명의 대가 바뀌여지는 시기에 수령의 후계자를 잘못 내세우면 야심가, 음모가들에 의해서 당과 나라가 망하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의 명맥이 끊기우게 된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아버지대원수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높이 추대하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이며 념원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님의 후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가장 훌륭하게 갖추시고 시대와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참다운 인민의 지도자이시기때문이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대원수님에 대한 충실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지니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대원수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지니는것을 제일생명으로 내세우시고 대원수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대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철저히 실현해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뛰여난 사상리론적예지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예술, 고매한 덕성을 가장 훌륭히 지니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63(1974)년 2월 아버지대원수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높이 추대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백두산에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지나온 생활체험을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깊이 느끼게 된 우리 인민들은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오래전부터 그이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영명하신 지도자동지》로 친근하게 부르며 높이 칭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 당조직들과 정권기관, 근로단체, 인민군대, 사회안전기관(당시), 과학, 교육, 문화, 출판보도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아버지대원수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높이 모실데 대한 청원서와 편지들을 당중앙위원회에 수많이 보내여왔습니다.

주체63(1974)년 2월 1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아버지대원수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높이 추대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혁명위업의 계승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였습니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은 기쁨에 넘쳐 위대한 장군님을 아버지대원수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높이 추대한것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이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민족의 일대 경사로 성대히 경축하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아버지대원수님의 후계자로,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사변이였습니다.

○ 이 가사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 감격에 넘쳐 언제나 숭엄하게 부르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 입니다.

백두산 줄기내려 금수강산 삼천리
장군님 높이 모신 환호성 울려가네
태양의 위업 빛내신 인민의 령도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대지의 천만꽃도 그 사랑을 전하고
동서해 푸른물도 그 업적 노래하네
주체의 락원 가꾸신 행복의 창조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강철의 담력으로 사회주의 지키여
내 나라 내 조국을 세상에 떨치시네
자주의 기치 높이 든 정의의 수호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제 19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아버지대원수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대원수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대원수님의 혁명사상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는것을 자신의 숭고한 사명으로 여기시고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시여 마침내 대원수님의 혁명

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일성**주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체계입니다. 다시말하여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지대원수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신것은 조선혁명과 세계혁명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3(1974)년 2월 19일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엄숙히 선포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결론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적인 결론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란 무엇이며 그 실현을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환히 밝히시였습니다.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한다는것은;

첫째로, 모든 사회성원들을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로 만드는것이며

둘째로, 사회를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

하는것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강화하시면서 당의 유일적지도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3(1974)년 4월 14일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제원칙을 새롭게 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력사상 처음으로 후계자의 지도체제문제를 당의 유일적지도체제로 정식화하시고 그것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모두 밝혀주시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도가 확고히 보장되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3(1974)년 3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를 내놓으시고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이 나래치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과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정중히 꾸리고 그

것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도록 이끄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삼지연혁명사적관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왕재산혁명사적지와 삼지연혁명전적지를 잘 꾸리기 위한 구상을 펼치시고 몸소 현지에 나가시여 건설사업을 세심히 지도하여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학생들이 혁명전적지답사와 아버지대원수님께서 조국광복의 큰뜻을 품으시고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을 따라걷는것을 전통화해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온 나라가 혁명전통교양마당으로 전변되고 청소년들의 답사행군대오가 굽이치게 되였습니다.

○ 이 사진들은 백두산답사행군대오와 일심단결을 보여주는 청년들의 기발대렬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각계각층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 제6차대회를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실현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는 력사적인 대회로 빛내여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조선

로동당 제6차대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내보내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도록 하시였습니다. 또한 100일전투를 포치하시여 주체69(1980)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당 제6차대회전으로 앞당겨 끝내도록 하시였습니다.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주체69(1980)년 10월에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습니다.

대회에서 전체 당원들의 한결같은 념원에 따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높이 추대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2차회의에 참석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정권이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사상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상리론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71(1982)년 3월에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세상에 내놓으시였습니다.

이 로작은 아버지대원수님께서 내놓으신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하였으며 그 원리를 더욱 심화발전시킨 주체사상의 총서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서도 주체사상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사상리론활동을 끊임없이 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를 비롯한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을 내놓으시여 주체사상을 더욱 발전풍부화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면서 집필하신 고전적로작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오늘 주체사상은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로 온 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 이 사진은 온 누리에 빛을 뿌리는 주체사상탑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차게 전진하게 되였습니다.

제 20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을 벌릴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8호제강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내놓으신 사회주의대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는데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3(1974)년 2월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속도전을 벌릴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속도전의 본질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며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이라고 가르치시였습니다.

그리고 속도전의 기본요구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하여 일을 빨리 해제끼면서도 가장 높은 질을 보장하는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두다 속도전 앞으로!》라는 구호밑에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3(1974)년 10월에 력사적인 70일전투를 발기하시고 몸소 조직지휘하시여 6개년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발기하시고 이 운동의 불길이 온 나

라에 타번지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라는 구호를 내놓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발기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4(1975)년 11월에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라는 구호를 내놓으시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발기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온 나라에 타번지게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검덕광산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검덕의 로동계급과 청산리의 농업근로자들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첫 봉화를 들도록 하시였습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온 나라에 타번짐으로써 사람들의 생각과 일본새가 달라지고 대중의 혁명적 열의가 더욱 높아져 혁명과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제2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7(1978)년 1월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내려보내시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제2차 7개년계획수행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00일전투를 포치하시여 제2차 7개년계획의 첫해인 주체67(1978)년도 인민경제계획을 공화국창건 30돐전으로 앞당겨 수행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나라가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며 협동농장원들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짓도록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칠골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80년대속도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리게 하시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80년대속도를 창조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71(1982)년 6월에 전후 천리마대고조를 일으켰던것처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다

시한번 대고조를 일으킬데 대하여 가르치시고 김철의 로동계급이 80년대속도창조운동의 봉화를 추켜들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80년대속도창조운동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선 대중을 80년대속도창조운동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주목을 돌리시였습니다.

이와 함께 80년대속도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시고 정력적인 지도를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검덕광업련합기업소 제3선광장과 서해갑문, 광복거리들이 일떠섰습니다.

그리고 간석지개간과 나라의 연료, 동력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경공업과 봉사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키고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평양시 경공업제품전시장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새로 건설된 광복거리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다시한번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 전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당, 전민이 총동원되여 제3차 7개년계획[주체76(1987)년－주체82(1993)]을 수행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77(1988)년 5월 전국영웅대회 소집을 발기하시고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내놓으시였습니다.

전국영웅대회의 호소에 따라 우리 인민은 새로운 200일전투에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빛나게 수행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90년대속도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새 전망계획을 빛나게 완수하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특히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수준을 더욱 높이도록 하시였으며 서부지구 곡창지대의 물문제를 완전히 풀기 위한 물길공사를 1년도 못되는 짧

은 기간에 끝내도록 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건설된 기념비적창조물들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로운 건설속도가 창조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게 되였습니다.

제 21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문화건설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도록 이끄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평양제1중학교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교육사업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테제관철을 위한 사업에 떨쳐나서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육테제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육내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체67(1978)년 6월 몸소 소학교와 중학교의 교수안을 친히 검토하신데 기초하여 그 개선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시고 보통교육부문의 교수내용을 새롭게 갱신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부문 교과서내용을 전반적으로 개작완성하도록 대담한 조치를 취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며 학생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육부문에서 학습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며 학교들에서 학습본위, 성적본위로 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학습을 잘하는 학생들과 학급, 학교를 내세우며 학습을 기본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시였습니다.

○ 이 로작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교육혁명

을 일으켜 학교교육사업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새 세대들을 쓸모있는 혁명인재로 훌륭히 키워내며 우리의 교육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더 잘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등일반교육의 질을 높이는것을 교육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중심과업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평양제1중학교를 본보기단위로 꾸리고 그 모범을 전국에 일반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등교육부문에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기술자, 전문가양성사업을 개선하는데도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사랑속에 일떠선 현대적인 학교에서 지식의 탑을 높이 쌓아나가고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속에서 자기들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워가는 학생소년들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공작기계전시관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돌격대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과학자, 기술자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에게 보다 훌륭한 과학연구조건을 보장해주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과학원(당시)을 중심으로 한 과학도시가 일떠서고 최신식실험설비들과 시험공장, 실험기구공장들이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74(1985)년 8월 고전적로작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에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방향과 그 실현을 위한 과업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문학예술을 더욱 개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추진시키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4.15문학창작단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학작품창작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작가들이 1970년대에 이룩된 빛나

는 성과에 토대하여 혁명적인 문학작품을 더 많이 쓰도록 이끄시여 총서《불멸의 력사》를 비롯한 수많은 소설과 시 작품들이 나오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주체예술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혁명영화 《조선의 별》야외촬영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창조사업을 세심히 보살피시여 아버지대원수님의 혁명력사를 형상한 다부작혁명영화 《조선의 별》을 세상에 내놓게 하시고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시대의 걸작품으로 완성시켜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연극과 교예, 음악, 무용, 미술 등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인민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함흥구강병예방원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3(1974)년 4월 보건부문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에서 주체의학에 기본을 두고 인민보건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에 따라 예방접종에 참가하고있는 학생들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체육사업을 발전시키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체육선수들을 고무격려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체육의 대중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근로자들속에서 여러가지 군중체육활동을 널리 벌리며 특히 대중률동체조와 태권도를 많이 하여 몸을 튼튼히 단련함으로써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하도록 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해나가고있는 학생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상전, 속도전, 기술전, 투지전의 방침을 제시하시고 체육의 모든 종목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였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습니다.

제 22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것을 가장 중대한 사업으로 내세우고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49(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 제105땅크사단에 대한 현지지도로부터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첫자욱을 새기신 때로부터 1960년대말까지 근 10년간 인민군대의 수백개 단위들에 대한 정력적인 현지지도를 통하여 령군체계를 확고히 세우시였으며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여 선군혁명의 핵심부대, 본보기로 키우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60년대말에 벌써 령도자로서 군령도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특출한 업적을 쌓으시였습니다.

하기에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지도자로서만이 아니라 최고사령관으로 대하고 받들었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흠모를 받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인민군대사업을 맡아 지도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때부터(1960년대말) 아버지대원수님의 선군사상, 선군령도업적을 계승하여 선군정치를 시작하시였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쳐 그것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조선인민군 해군부대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4(1975)년 1월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한다는것은 인민군대를 수령님의 군대, 당의 군대로 만든다는것이며 그 기본요구는 모든 군인들을 열렬한 **김일성**주의자로 만들고 군건설과 군사활동을 **김일성**주의요구대로 해나

가는것이라는것을 밝히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에 대해서도 뚜렷이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심으로써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전군을 현대화하여 정치사상적우월성에 현대적기술을 결합하여야 혁명군대를 참말로 무적의 군대로 만들수 있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인민무력부 책임일군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첫째가는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5(1976)년 1월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자!》라는 새로운 구호를 제시하시고 모든 군인들이 아버지대원수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안에 3대혁명붉은기쟁

취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이 운동을 다른 대중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속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그들을 펄펄나는 싸움군으로 준비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휘관들의 군사적자질과 지휘능력을 높여주는데 커다란 주목을 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 군인들이 **《훈련도 전투다!》**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 식의 전법대로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전투훈련을 진행하도록 이끄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군인들의 전투훈련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의 기본전투단위인 중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조선인민군 구분대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땅크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장장비들을 끊임없이 개선완성하며 전투기술기재들의 현대화를 더욱 다그쳐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군수공장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무기생산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친히 하나하나 풀어주시여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온 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대군인들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우수한 근로자들로 로농적위대대렬을 더 늘이고 군사훈련을 강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이와 함께 붉은청년근위대를 잘 꾸리고 군사훈련을 옳게 지도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더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핵화학습격과 그 어떤 공중타격도 끄떡없이 막아낼수 있도록 군사진지를 요새화, 현대화하기 위한 대규모의 방어공사작전을 펼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대들을 돌아

보시면서 지리적특성과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방어진지를 튼튼히 꾸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기풍을 세우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1(1992)년 2월에 발표하신 《인민군대를 강화하며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기풍을 세울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과 말씀들에서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인민군대를 사랑하고 적극 도와주는것이 사회적기풍으로 되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대중운동도 더욱 발전시키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대군관들, 영예군인들과의 사업을 강화하게 하시고 몸소 은정깊은 사랑을 돌려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는 그 어떤 침략자도 단매에 쳐물리치고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는 방위력이 더욱 굳건히 다져지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중책을 위대한 장군님께 넘기기로 결심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대원수님의 직접적인 제의에 따라 주체80(1991)년 12월 24일에 소집된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전원회의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중책을 맡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2(1993)년 4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였으며 주체81(1992)년 4월 20일에는 위대한 장군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력사적인 결정이 채택되였습니다.

○ 이 사진이 그에 대한 신문보도입니다.

제 23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고 해외교포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통일을 앞당기고 해외교포운동을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원이며 새 세대 청년들앞에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업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략사상을 밝히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대원수님의 혁명사상과 높으신 권위를 가지고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전략사상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전략사상에 기초하여 남조선애국력량을 강화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숭미사대주의사상을 뿌리빼고 민족자주의식을 높일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습니다.

특히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위대성선전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의 기본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길데 대하여 말씀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민족공동의 유일한 통일강령으로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대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5대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5대방침을 소개한 신문보도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반부혁명력량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지게 하시면서 남조선혁명력량을 늘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동포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하나의 력량으로 묶어세우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폭넓은 북남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북남적십자회담장소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1(1972)년 7월 판문점회담장소에까지 나오시여 예비회담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가로놓인 장벽을 허물어버리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근 1년동안이나 끌어오던 적십자예비회담은 성과적으로 결속되고 주체61(1972)년 8월말부터 적십자본회담이 평양과 서울을 오가면서 진행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남고위급회담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실현을 위한 정치선전을 강화할데 대하여 말씀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과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도록 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미제와 남조선군사파쑈도당을 반대하여 싸우는 광주인민들과 청년학생들입니다.

○ 이 사진은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군중집회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73(1984)년 9월 남조선에서 수십만명의 수재민이 생기자 그들에게 막대한 량의 구호물자를 보내주도록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남조선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내줄데 대하여 말씀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그리하여 나라가 갈라져 근 40년만에 처음으로 쌀 5만

석과 천 50만m, 세멘트 10만t, 많은 량의 의약품들이 남조선인민들에게 전달되게 되였습니다.

○ 이 사진이 공화국정부가 남조선수재민들에게 보내준 구호물자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해외교포운동을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에서 **김일성**주의기치를 들고 총련대오의 **김일성**주의화를 실현해나가도록 이끄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총련일군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사업의 기본을 총련의 모든 일군들과 동포들을 아버지대원수님과 당에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혁명가, 애국자로 키우기 위한 사람과의 사업, 동포대중을 교양하는 사업에 두도록 하시였습니다.

특히 총련의 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잘해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재일조선청년학생들의 편지전달계주단을 만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사람이 살고있는 세계 모든 지역에서 우리 당의 해외교포운동방침이 실현되도록 이끄시였습니다.

○ 이 사진이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해외교포들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다른 나라에서 살고있는 모든 조선사람들이 전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굳게 뭉쳐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게 되였습니다.

제 24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세계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반제자주력량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현시대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멸망을 앞두고 발악하는 제국주의를 결정적으로 타승하고 자주적인 새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것은 오늘 세계 혁명적인민들앞에 나서고있는 공동의 투쟁과업입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세계 여러 나라 대표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반제자주력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체사상선전사업을 세계적

범위에서 힘있게 벌려나가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출판물을 통하여 주체사상대외선전을 강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에 대외출판물보급기지를 잘 꾸리게 하시여 아버지대원수님의 고전적로작들과 주체사상해설도서들을 많이 만들어 보급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하는 아버지대원수님의 로작을 번역, 출판, 소개하는 사업도 잘 도와주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상신봉자들과의 사업을 잘하도록 이끄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인디아주체사상연구학회 서기장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관심속에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주체사상신봉자대렬이 급속히 늘어나고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광범히 무어졌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반제자주력량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사회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덩샤오핑(등소평)선생님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중 두 나라 당과 인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고 주체72(1983)년 6월 친히 중국을 방문하시여 조중친선의 새로운 장을 펼쳐놓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상하이(상해)시민들과 소년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계 진보적 정당, 단체, 혁명조직들과 련계와 접촉을 강화하고 단결을 굳건히 하도록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팔레스티나 야씨르 아라파트대통령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데도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가 쁠럭불가담운동의 성원국으로 들어가 이 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고 반제

자주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켜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반제공동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에서 여러 국제회의를 열도록 하시고 그것이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되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반제련대성, 평화와 친선의 대축전으로 되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외국대표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1980년대말부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엄중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

한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질적특징과 우월성, 그 불패의 위력의 원천, 사회주의승리의 필연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고 사회주의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길을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를 위한 세계 혁명적당들과 인민들의 공동의 투쟁강령을 마련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1(1992)년 4월 평양에서 평양선언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를 발표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오늘 세계의 거의 모든 혁명적당들이 이 평양선언에 서명하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따라배우고있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을 선전한 세계 여러나라 출판물들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습니다.

제 25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청소년들을 당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으로 키워주고계신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나라 청소년운동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800만 청소년들을 당을 맨 앞장에서 보위하는 결사대로 키워주시는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 청소년운동을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청년동맹에서는 모든 청소년들을 총폭탄이 되여 우리 당을 맨 앞장에서 결사옹위하는 청년전위, 소년근위대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소년운동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시대와 청년들의 임무》,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 《우리 나라 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자》를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청소년운동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발표하신 고전적로작들이며 이 사진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보아주신 문건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 청소년운동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소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튼튼히 키우는것을 청년동맹과 소년단의 총적임무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7차대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로청 제7차대회를 청년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출발점으로 되게 하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대회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주체70(1981)년 10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대원수님을 모시고 사로청 제7차대회에 몸소 참석하시여 대회가 잘 진행되도록 보살펴주시였습니다.

사로청 제7차대회를 계기로 청소년사업에서는 새로운 전

환이 일어났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동맹안에 우리 식의 독특한 사상교양체계와 조직생활체계를 세워주시고 청소년교양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낌없이 돌려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청소년교양자료전시회장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2(1993)년 2월 27일 청소년교양자료전시회장에 진렬된 동화그림책들도 보아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중학시절에 학생들에게 들려주신 동화들로 만든 그림책이 처음 나왔을 때 아이들이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2월의 명절을 맞으며 매 소년단분단들에 선물로 보내주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년단원들에게 이런 좋은 책들을 더 많이, 더 잘 만들어주라고 금성청년출판사를 현대적으로 새로 지어주시였습니다.

○ 이 사진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은정깊은 사랑속에 일떠선 금성청년출판사와 청년전위신문사, 청년중앙회관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동맹사업을 매우 중시하시고 언제나 청소년들을 굳게 믿고 높이 내세워주십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모범적인 청년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이 강하고 군대가 강하고 사로청이 강하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으며 그 어떤 침략자도 때려부실수 있다고 하시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력사적시각에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을 내보내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동맹에서 요구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바라는것이라면 그 무엇이나 다 풀어주시며 청소년조직에서 대회와 행사를 하여도 온 세상이 들썩하게 성대히 진행하도록 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들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개막행사와 조선청년학생대표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려 750여차례의 가르치심과 30여차례의 현지지도를 주시여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국제축전으로 되게 하여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우리 나라 청소년운동은 일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800만 청소년들을 당을 맨 앞장에서 받드는 결사대로 키워주고계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800만의 청소년들이 한명의 락오자도 없이 다 믿음직한 총폭탄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800만 청소년들을 당을 결사옹위하는 전위대오로 키울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고 사로청 제8차대회와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를 마련해주시였습니다.

주체82(1993)년 2월에 열린 사로청 제8차대회와 주체83(1994)년 6월에 열린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는 800만의 청소년들을 전위대오로 준비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 력사적인 대회입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사로청 제8차대회에 참석하시여 소년단원으로부터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받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로청 제8차대회에 참석하시여 청년대표들이 다지는 신념의 맹세를 몸소 들어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오늘 청년대표들이 500만 청년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총폭탄이 되고 리수복이 되여 당을 결사옹위하겠다고 다진 맹세가 좋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 대회장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를 마련해주시고 300만 소년단원들이 청년들의 뒤를 따라 당을 맨 앞장에서 보위하는 소년근위대로 튼튼히 준비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800만 청소년들을 총폭탄으로 키우는 사업을 청년동맹에 맡겨주시면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800만 총폭탄중 단 한발의 불발탄도 없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결사옹위할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는 학생청소년들입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은 우리의 청소년들을 당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으로 키워주시는 조선청년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이십니다.

제 26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청소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로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청년들에게 혁명의 홰불봉을 넘겨주시고 사로청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새 세대 청년들이 아버지대원수님께서 백두산에서 지펴올리신 혁명의 홰불을 대를 이어 높이 추켜들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이끄시고계십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청년들에게 혁명의 홰불봉을 넘겨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당의 일관한 청년중시사상을 틀어쥐고 언제나 청년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내세워주어 그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키워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선배들이 추켜들었던 혁명의 홰불봉을 청년전위들에게 넘겨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50돐을 뜻깊게 경축하는 청년들의 홰불시위에 몸소 참석하시여 대를 이어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선 청년들에게 혁명의 홰불봉을 넘겨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넘겨주신 혁명의 홰불봉에는 새 세대들이 꺼질줄 모르는 혁명의 홰불이 되여 불타는 열정과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안고 당과 수령을 맨 앞장에서 결사옹위하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우리 당의 청년전위가 되기를 바라시는 장군님의 크나

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혁명의 홰불봉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 청년들이 언제나 높이 추켜들어야 할 투쟁의 홰불, 전진의 홰불, 신념의 홰불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담당자로 억세게 키워주고계십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자강도 성간군 성간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주체89(2000)년 8월 31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성간군에 대한 현지지도를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성간중학교를 찾아주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공부하는 학교를 찾은 학부형의 심정으로 교실과 실험실, 콤퓨터실, 계급교양실 등 교정의 곳곳을 하나하나 돌아보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토끼기르기에서 모범적인 학생들과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7.15최우등상》메달과 《〈우리 교실〉문학상》메달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학교 전기간 최우등의 성적을 쟁취한 학생들중에서 특별히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7.15최우등상을, 글짓기경연에 우수한 작품을 낸 학생들에게는

《우리 교실》 문학상을 수여하도록 하여주시였습니다.

○ 이 사진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에 참가한 사로청원들과 소년단원들에게 보내주신 축하문과 전국고등중학교 《7.15최우등상》 수상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축하문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대원수님께서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신 70돐을 맞으며 전국학생소년들의 답사행군을 조직하도록 하시였으며 행군을 성과적으로 마친 답사행군대원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7.15최우등상쟁취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하여 운동발단 10돐이 되는 주체86(1997)년 2월에 전국고등중학교(당시) 7.15최우등상 수상자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대회참가자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들을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로 내세워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청년영웅도로건설에 참가한 청년돌격대원들과 군인건설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7(1998)년 9월에 평양—남포고속도로(당시)를 당창건 55돐까지 건설할것을 발기하

시고 이 도로건설을 청년들에게 통채로 맡겨주시였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는 2년도 안되는 기간에 무려 100여차례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청년건설자들에게 한없는 믿음과 사랑을 베푸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신임과 뜨거운 사랑을 받아안은 청년건설자들은 정대와 함마로 바위를 까내고 마대와 맞들이전을 벌려 장군님의 별동대로서의 위력을 시위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청년동맹에 수여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발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우리 나라 청년운동이 걸어온 기나긴 로정은 아버지대원수님의 존함을 빛내이며 전진하고 승리해온 자랑찬 력사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청년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 운동이라는것을 밝히시고 우리 청년동맹을 아버지대원수님의 청년조직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오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로청창립 50돐에 즈음하여 사로청대표자회를 마련해주시면서 전체 청년들과 인민들의 한

결같은 소망과 의사에 따라 사로청을 아버지대원수님의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사로청의 명칭 개칭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사로청대표자회에 참석하시여 사로청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지도해주시였습니다.

주체85(1996)년 1월 17일에 개막된 사로청대표자회에서는 온 나라 청년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일치한 의사에 따라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고칠데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결정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의 존함을 청년동맹에 모신것은 조선청년운동의 강화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사변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월 19일 몸소 사로청대표자회 폐막회의에 참석하시여 아버지대원수님의 영상이 모셔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발을 청년동맹에 수여하시였습니다.

주체85(1996)년 1월 20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선포를 경축하는 전국청년전위들의 대회가 **김일성**경기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였습니다.

참으로 청년동맹에 아버지대원수님의 존함을 모신것은 대원수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고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특기할 력사적사변이였습니다.

제 27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청소년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신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돌려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여기에 있는 이 구호 《청년들을 사랑하라!》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새로 내놓으신 구호입니다.

이 구호에는 청년들의 랑만을 지켜주고 꽃피워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은정, 청년들에 대한 당과 인민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이 붉은넥타이를 매여드리였다》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영광을 안겨주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리 당의 후비대이며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입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것은 주체혁명위업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청소년들속에 계시면서 기쁨도 행복도 함께 나누십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학생소년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아버지대원수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소년학생들과 함께 계시는것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어느해 봄 4월15일소년백화원에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소년들과 같이 나무를 심으시였으며 어느날에는 한 소년단원의 노래를 들으시고 민요를 아주 잘 부른다고 하시면서 그의 손목에 사랑의 금시계까지 채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상에 우리 나라 청소년들처럼 훌륭한 청소년들은 없다고 하시며 우리 청소년들속에서 발양된 자그마한 소행도 귀중히 여기시고 온 세상이 다 알게 하여주십

니다.

아버지대원수님의 유훈을 꽃피우려고 농촌으로 진출한 형님, 누나들, 영예군인들과 일생을 같이하는 형님, 누나들의 소행이 하도 기특하시여 감사를 보내주신분도 우리 장군님이시고 나어린 소년단원이 올린 편지까지 일일이 보아주시고 친필을 보내주신분도 우리 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높은 칭호와 영예를 안겨주십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제정해주신 《**김일성**청년영예상》과 《**김일성**소년영예상》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끝없는 영광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청년들의 가슴에 아버지대원수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모셔진 청년전위초상휘장을 안겨주시고 모범적인 청년동맹원들과 소년단원들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과 **김일성**소년영예상을 수여하도록 하는 크나큰 은정을 돌려주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아버지대원수님께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창립하신 뜻깊은 날을 청년절로 정해주시고 해마다 성대히 기념하도록 하여주십니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베풀어주시는 믿음과 영광은 끝이 없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천만금도 아낌없이 돌려주고 계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리 조국의 미래입니다. 후대들을 위하여서는 천만금도 아까울것이 없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는 곳마다에 과외교양기지들을 꾸려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삼지연소년단각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돈을 아꼈다가 어디에 쓰겠는가, 후대들을 위하여 쓰자고 하시면서 경치 아름다운 산과 바다가들에 소년단야영소를 세워주시고 각 도와 여러 시, 군소재지들에 현대적인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을 지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상에서 으뜸가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일떠세워주시였습니다.

○ 이 사진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 일떠선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다 건설되자 몸소 현지에 오시여 만점짜리 집이라고, 후대들에게 물려줄 또하나의 기념탑이 솟아났다고 더없이 기뻐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손길이 있기에 경치 아름다운 산과 바다가에 소년단야영의 기발이 휘날리고 불밝은 학생소년궁전무대에서 학생소년들의 노래소리가 그칠줄 모르고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소년들의 학습과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십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영웅강계장자산제1중학교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주체92(2003)년 7월 4일 영웅강계장자산제1중학교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콤퓨터소조원들의 콤퓨터솜씨를 친히 보아주시며 학교에서 어떤 콤퓨터들을 가지고있는가, 교원들의 콤퓨터지식수준과 학교의 콤퓨터교육실태는 어떠한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습니다. 그리고 콤퓨터교육을 강화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또한 수십대에 달하는 최신식콤퓨터와 여러대의 피아노를 선물로 보내주시는 은정깊은 사랑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나라 학생들에게 철따라 교복과 학용품도 안겨주시며 외진 산골마을과 등대마을의 몇

명 안되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주시고 통학렬차, 통학뻐스, 통학승용차, 통학배까지 보내주시여 학생소년들이 누구나 마음껏 배우며 생활하도록 사랑과 은정을 돌려주십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학생소년들에게 줄 학용품견본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글을 쓰다가 연필알이 부러지면 안타까와할 어린이들의 속마음까지 헤아리시여 수지연필공장을 세워주시고 수지연필이 생산되자 아이들의 동심에 맞는 연필이름까지 붙여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유치원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줄 선물옷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소년들에게 안겨줄 선물옷은 제일 좋은것으로 맵시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선물옷생산을 친히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도 마음놓이지 않으시여 선물옷차림을 한 학생들을 불러 교복의 형태와 색갈, 무늬까지 일일이 보살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극진한 사랑과 은정속에서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행복과 기쁨만을 누리며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씩씩하게 자라나고있습니다.

제 28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기 위한 사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아버지대원수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여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서거 100일중앙추모회에 참석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주체83(1994)년 7월 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너무도 뜻밖에 우리곁을 떠나시였습니다.

산천초목도 슬픔에 떨고 온 세상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반만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당해보는 이 가슴아픈 나날에 우리 인민이 쓰러지지 않고 억척같이 일떠설수 있은것은 아버지대원수님과 꼭같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신다는 굳은 신념이 있었기때문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아버지대원수님을

못잊어하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을 반영하여 추모행사를 엄숙히 거행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각계층 인민들이 더 많이 아버지대원수님의 령전을 찾아뵙고 굳은 결의를 다지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미 발표하였던 애도기간을 더 연장하고 조객들을 받아들이는 기간을 늘이게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5대륙의 수많은 나라 인사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아버지대원수님을 추모할수 있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결식을 비롯한 추모행사를 통하여 아버지대원수님의 영상을 태양의 모습으로 인민들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태양의 모습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도록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결식에 모시고나갈 아버지대원수님의 초상화를 환히 웃으시는 태양의 모습으로 형상할것을 발기하시고 몸소 그 원본사진까지 골라 보내주시며 여러차례에 걸쳐 태양상형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였습니다.

또한 아버지대원수님을 추모하는 모든 행사장들과 평양시내의 여러곳은 물론 전국각지의 주요군중교양장소마

다에 대원수님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시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대원수님께서 서거하신 7월 8일을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로 맞이하는것을 전통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5(1996)년 2월 아버지대원수님을 끝없이 그리워하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을 반영하여 아버지대원수님께서 서거하신 7월 8일을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로 맞이하는것을 전통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아버지대원수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백년이고 천년이고 대대손손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셔야 하며 모든 사업을 수령님식대로 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금수산의사당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고 아버지대원수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길이 모시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대원수님께서 오랜 기간 사업하시던 금수산의사당을 기념궁전으로 잘 꾸리고 여기에 대원수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높이 모실것을 발기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 금수산기념궁전을 꾸리기 위한 사업과 관련하여 400여차례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매일과 같이 현지에 나오시여 기념궁전을 꾸리는 사업전반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건설하도록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러한 세심하고도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금수산기념궁전은 아버지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원한 태양의 집으로, 주체의 최고성지로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대원수님께서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신념의 구호를 제시하시여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아버지대원수님의 영생에 대한 철석의 신념을 심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영생탑을 건립하

도록 하시였습니다. 특히 아버지대원수님께서 늘 다니시던 금성거리입구에 대형영생탑을 건립할것을 친히 발기하시고 탑이 훌륭히 건립되도록 이 사업을 세심히 이끌어주시였습니다. 또한 아버지대원수님을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높이 모시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대원수님의 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고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력적인 저술활동을 벌리시여 아버지대원수님의 사상리론적업적을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였습니다.

그리고 영화문헌들을 제작하며 금강산과 묘향산의 명소들과 천연바위들에 아버지대원수님을 칭송하는 불멸의 글발을 새기고 판문점에는 대원수님의 조국통일친필비를 세우도록 하시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념도서편찬사업을 몸소 발기하시고 정력적으로 이끄시였습니다.

또한 여러 단위들에 아버지대원수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고 현지지도사적비를 건립하며 대원수님의 존함을 모시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6(1997)년 7월 8일에는 주체년호와 태양절을 제정하는 중대한 력사적조치를 취해주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주체의 최고성지로 높이 솟은 금수산기념궁전과 어버이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길이 모시며 태양절과 주체년호를 제정할데 대한 신문보도와 사진,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도서입니다.

이렇듯 아버지대원수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받들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끝없이 뜨거운 마음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 땅우에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습니다.

제 29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구현하시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켜내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구현하시여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 우리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내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조선인민군 중대장 및 중대정치지도원대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 선군정치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의 혁명적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혁명령도방식이며 사회주의정치방식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한마디로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독창적인 사회주의정치방식입니다.

선군정치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는 정치방식입니다.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운다는것은 군사를 나라의 제일 중대한 사업으로 여기고 국방력강화에 가장 선차적인 힘을 넣는다는것입니다.

선군정치는 인민군대의 혁명적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정치방식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1990년대 중엽 복잡하고 첨예했던 우리 혁명의 내외환경으로부터 독창적인 선군정치방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랜 기간의 선군령도, 선군정치를 통하여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울수 있는 모든 조건을 성숙시켜오신데 기초하여 미제와의 대

결이 극도에 이른 1990년대 중엽에 이르러 선군정치방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해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대원수님께서 서거하신 후 인민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총대중시, 군사중시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나가시려는 확고한 결심을 다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대원수님께서 서거하신 직후인 주체83(1994)년 7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을 몸가까이에 부르시고 인민군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령도해오신 조선혁명위업완성에서 주력군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시작도 군대를 가지고 하시였으며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완성과 승리도 군대를 가지고 이룩하려고 하시였습니다, 총정치국에서는 혁명무력을 창건하시고 승리에로 령도하여오신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위업완성의 주력군으로 인민군대를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일층 강화하여야 하겠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에는 아버지대원수님의 생전의 뜻대로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총대중시, 군사중시의 원칙에서 우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나가시려는 확고한 결심과 철석의 의지가 담겨져있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인민군장병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담은 꽃다발을 받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

니다.

주체84(1995)년 1월 1일 아침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아버지대원수님께 경의를 드리신 다음 그길로 인민군대의 한 포병중대(다박솔초소)에 대한 현지시찰을 떠나시였습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진지에 오르시여 새해를 맞는 초병들을 축하해주시고 군인들의 화력복무훈련을 보아주시였습니다.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대교양실과 병실에도 들리시여 초병들의 군무생활을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싸움준비완성을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때로부터 각급 부대와 구분대의 전방지휘소들 지어 최전연에 자리잡은 초소에 이르기까지 전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아무리 멀고 험한 길, 위험한 길도 가리지 않으시고 다 찾아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해군전투함들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전방지휘소에 오르시여 지형지물과 력량배치상태, 적정을 료해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우리 시대, 선군시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숭고한 혁명정신인 혁명적군인정신을

창조하고 그것을 전당과 온 사회에 일반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시찰의 나날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힘차게 맥박치는 수령결사옹위정신, 육탄정신, 자폭정신을 수많이 목격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완공단계에 들어선 안변청년발전소건설정형을 료해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주체85(1996)년 6월 안변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발휘한 혁명정신과 위훈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발전소건설자들의 영웅적위훈은 우리 당의 력사와 더불어 후세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군인건설자들속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는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육탄정신, 자폭정신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명명해주시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 정신을 따라배울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습니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위대한 장군님을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수령결사옹위정신, 그 어떤 조건에서도 당이 맡겨준 전투과업을 어김없이 무조건 수행하는 결사관철의 정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서는 자기의 한몸을 서슴없이 바치는 영웅적희생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인민군대의 고유한 혁명정신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6(1997)년 3월에 이 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벌리기 위하여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대책까지 세워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사중시의 원칙에서 우리의 국가기구체계를 강위력한 국방위주의 국가기구체계로 개편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직후에 벌써 우리의 국가기구체계를 계승성이 확고히 보장되고 군사중시사상의 요구에 맞게 개편할 구상을 펼치시면서 일군들에게 그 구체적방향과 방도에 대하여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체87(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는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새로운 국가기구체계를 세울데 대하여 규정한 새 헌법, **김일성**헌법이 채택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시여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내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과의 정치사

상적대결에서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혁명성이 강하고 사상적신념이 확고한 전위부대로 키우시였으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우리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허물어버리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던 제국주의자들을 보기 좋게 굴복시키고 마침내 적들로부터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정치적공약까지 받아내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과의 군사적대결에서도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시였습니다.

선군정치는 그처럼 간고한 시기에 군대를 강화하고 군사를 발전시켜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압살책동,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위업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게 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세력과의 외교적대결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안아오시였습니다.

전쟁이 터지느냐 마느냐 하는 준엄한 시기에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고 미싸일협상, 고위급회담 등 여러 갈래의 외교전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던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로 그 어떤 원쑤도 단

매에 쳐물리칠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억제력을 다져놓으시였기때문이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위력을 보여주는 사진 및 신문보도, 미국대통령의 담보서한입니다.

제 30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혁명의 군사적 진지를 철옹성같이 다지고계신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정치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나라의 기둥으로 더욱 강화하고 우리 혁명의 군사적진지를 철옹성같이 다지고계시는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 나라의 기둥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전방초소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 나라의 기둥으로 키울데 대한 독창적인 군건설사상을 제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

시였습니다.

《인민군대는 혁명의 주력군이며 나라의 기둥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인민군대가 혁명의 주력군, 나라의 기둥이라는 사상은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군대를 사회주의조국의 믿음직한 수호자로 준비시키며 혁명군대가 사회주의위업전반을 전진시켜나가는데서 핵심부대,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할것을 요구하는 주체의 혁명적군건설사상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 나라의 기둥으로 더욱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수령결사옹위정신이 꽉 들어찬 총폭탄대오로 꾸리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위대성교양을 인민군대안의 정치사상교양에서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들, 육탄영웅, 자폭용사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게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조선인민군 제395군부대 교양실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운 대중운동을 발기하시고 현

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5(1996)년 1월 인민군대앞에 **《전군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오늘의 7련대가 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벌릴것을 발기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목적과 중심과업, 방도들을 밝혀주시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인민군대안에서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를 하달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불패의 전투력을 지닌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조선인민군 제3995군부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의 지휘성원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의 군사기술적자질과 지휘능력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투훈련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 을 일당백의 전투원들로 튼튼히 준비시키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공군부대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지시찰의 길에서 군인들이 진행하는 여러가지 종목의 훈련들을 친히 보아주시고 모든 훈련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주체적립장에서 전투적으로 조직진행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장갑보병중대훈련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현대화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인민군구분대의 전투기술기재성능을 료해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강성대국건설의 제일기둥으로 앞장에 내세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중요공사들을 인민군대에 맡겨주시고 그것을 제기일에 훌륭히 완공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또한 농업전선, 전력공업전선, 석탄전선들에 인민군군인들을 파견하시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부단히 늘여나가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 나라의 기둥으로 키우시는 나날에 전사들에게 한없이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철령령마루에서 전투임무를 수행하고있는 인민군병사와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대오, 무적필승의 강철의 대오, 강성대국건설의 제일기둥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될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나라의 전반적방위력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로선을 내놓으시고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국방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그 위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속에서도 민간무력의 싸움준비를 더욱 완성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미제원쑤놈들을 단매에 족쳐버릴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어가는 붉은청년근위대원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민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를 보

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준엄한 시련을 헤쳐나가시던 어려운 시기에도 방어시설물공사를 전국적범위에서 중단없이 밀고나가게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온 나라가 샤오왕칭(소왕청)과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보다 튼튼히 꾸려졌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매에 쳐물리칠수 있는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를 철저히 갖춘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게 되였습니다.

제 31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당을 튼튼히 꾸리고 혁명의 수뇌부를 핵으로 하는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다지고계시는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가자면 당을 튼튼히 꾸리고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을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을 영원히 아버지대원수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대원수님께서 주체의 당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고 우리 당을 영원히 대원수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히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당을 하나와 같이 묶어세우도록 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유일적지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을 철저히 세우게 하시였습니다. 또한 온 사회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확고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주체84(1995)년 8월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재접수, 재토의하는 사업을 진행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대렬의 정치사상적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도 신중한 주의를 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원들의 정치적각성을 높이고 당생활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당안에 숨어있던 사상적동요분자들, 타락분자들을 제때에 적발숙청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혁명의 수뇌부를 핵으로 하는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다지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당, 전군, 전민이 령도자를 따르고 높이 받들어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아버지대원수님만을 받들어모시고 혁명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따라배워 좋은 날에나 준엄한 날에나 변함없이 당을 받들고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특히 동지애로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우리 혁명의 전통을 계승하여 혁명적동지애와 의리로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도록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신사동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령도자를 순결한 량심으로 받들어나가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각이한 년대에 령도자를 진심으로 받들어온 혁명가들 특히 령도자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흠모의 마음을 안고 자기 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나가고있는 시대의 영웅들의 빛나는 모범을 모든 사람들이 적극 따라배우게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구봉령에서 성간군도로시설대 김성녀가족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김광철영웅의 동생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나날 인민군대안에서 최고사령관과 장병들사이의 혼연일체, 지휘관과 병사들사이의 관병일치를 최상의 높이에서 실현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사회의 밑뿌리인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이 더욱 높이 발양되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민일치에서 기본은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를 보장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 혁명적투쟁기풍을 본받고 따라배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인민군대가 군민일치보장에서 주체가 되고 선도자가 되며 우리 당의 군민일치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실속있게 벌리게 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우리 학교－우리 초소》운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는 학생소년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사회에 사회주의도덕기풍을 세우는데도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도덕교양을 심화시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숭고한 도덕의리로 깊이 간직하게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서슴없이 바치는 미풍을 적극 내세우고 따라배우는 사업을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벌려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온 사회의 일심단결은 령도자와 군대와 인민이 편지를 통하여 긴밀한 뉴대를 맺고 숨결을 같이하고있는데서 뚜렷이 발

현되고 더욱 공고화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84(1995)년 1월 1일 군대와 인민에게 보내신 새해친필서한은 군대와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화였습니다.

이 친필서한으로부터 시작하여 주체92(2003)년 8월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아주신 편지의 총건수는 무려 15만 4 690여건에 달하였습니다.

○ 이 사진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친필서한들과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과시하는 홰불행진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정치사상진지는 더욱 굳건히 다져졌습니다.

제 32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고계신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시고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놓으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뜻을 받들어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구상을 해왔으며 그 준비를 갖추어왔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는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경제강국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을 아버지대원수님의 유훈관철에로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3(1994)년 11월 아버지대원수님의 원대한 수도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최고사령관명령을 하달하시여 청류다리(2단계)와 금릉2동굴건설을 당창건 50돐기념일까지 완공할데 대한 과업을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당시)장병들에게 맡겨주시였습니다.

이 투쟁과정에 발휘된 군인건설자들의 결사관철정신은 아버지대원수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온 나라 인민을 영웅적위훈에로 힘있게 추동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강조국건설구상을 펼치시고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만난을 극복해나가도록 전당, 전군, 전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피눈물속에 주체83(1994)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는 아침에 온 나라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가자는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였습니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전체 인민이 고난의 행군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가르쳐주시고 숭고한 실천적모범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계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

의경제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기적과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강도를 고난의 행군결속의 본보기로 꾸릴 결심을 안으시고 이 도의 모든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7(1998)년 1월 대소한의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몸소 자강땅을 찾으시여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일하는 과정에 이곳 로동계급과 인민들이 발휘한 고귀한 투쟁정신을 《**강계정신**》으로 높이 내세워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자강도에서 새로 건설한 중소형발전소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여러차례 자강도를 찾으시여 강계정신의 창조자들이 계속 앞장서나가도록 고무해주시면서 온 나라가 강계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7(1998)년 3월 성진제강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이곳 로동계급에게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 성강의 봉화를 지펴주시고 그 불길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세차게 타번지게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성진제강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성강의 봉화에 이어 라남의 봉

화를 지펴주시여 온 나라에 창조와 혁신의 불길이 더 세차게 타오르게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력과 식량문제를 푸는것을 경제강국건설의 중심고리로 설정하시고 여기에 모든 힘을 집중하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대규모수력발전소와 중소형수력발전소건설이 힘있게 진행되였으며 종자혁명과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토지정리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위한 첫 포성이 울리고 이 땅우에 국토건설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강원도의 토지정리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짓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도록 정력적

으로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8(1999)년을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 총진격의 해로 정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 인민을 제2의 천리마대진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으며 우리 시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의 불길도 세차게 타오르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가도록 현지에서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구성공작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대홍단군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창건 55돐을 맞으며 선군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이 건설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창건 55돐까지 평양－남포고속도로(당시), 안변청년발전소(2단계)와 태천5호발전소를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건설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에로 이끄시고 강성대국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보여주는 사진 및 신문보도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창건 55돐을 강성대국건설의 자랑찬 승리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 과정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이 빛나게 결속되고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인 전진이 이룩되게 되였습니다.

제 33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해외교포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통일 3대헌장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해외교포운동을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대로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시는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 3대헌장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을 계승하여 우리 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우리 인민의 혁명적 의지이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판문점에 모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친필비를 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의 3대헌장을 정립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6(1997)년 8월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식화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3대헌장과 조국통일5개방침에 기초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남사이의 래왕과 접촉, 협력, 교류를 강화하여나가도록 이끄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남조선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과 현대아산 정몽헌회장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 련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최고위급회

담을 마련하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상봉이 마련되기까지 여러 차례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그 준비사업을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주체89(2000)년 6월 13일 오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비행장에 나가시여 남조선당국자일행을 뜨거운 동포애의 정으로 맞이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남측대표단이 평양에 머무르는 기간 많은 시간을 그들과의 사업에 바치시며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조선당국자와 여러 시간에 걸쳐 단독회담을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6월 15일 단독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담아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되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에 서명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 이 사진이 북남공동선언입니다.

6.15북남공동선언의 핵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한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상봉이후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남공동선언에 기초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여러 갈래의 대화와 협상, 호상래왕과 협력, 교류사업을 보다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주체89(2000)년 9월에는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의 공화국북반부에로의 집단적송환이라는 인류사적사변이 일어났습니다.

○ 이 사진은 조국의 품에 안긴 비전향장기수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새로운 력사적전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해외교포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을 강화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도록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총련일군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4(1995)년 5월 총련결성 40돐에 즈음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보내신 서한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방향과 과업, 방도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정을 돌려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경공업대학을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으로 명명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조국에 기증한 모든 대상들에 그들의 애국적소행을 길이 전할수 있게 동포들의 이름을 달아 부르거나 애국이라는 말을 붙여 부르도록 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이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이고 이 사진들은 김만유병원과 안상택거리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반적해외교포운동을 주체혁명위업에 참답게 복무하는 민족적애국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최홍희선생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사람이 사는 모든 나라와 지역들에 교포조직을 내오고 그 역할을 높이는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해외동포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태양절을 맞으며 지린(길림)육문중학교에서 재중동포들이 진행한 행사이며 이 사진들은 민족대단결의

기상 넘쳐나는 **김일성**경기장과 북남해외동포예술인들의 범민족통일음악회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해외동포들이 **김일성**민족의 한성원이라는 높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민족성을 견결히 고수하며 사회주의조국을 옹호하고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해외교포운동은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테두리를 벗어나 조선사람이 살고있는 세계 모든 나라와 지역을 다 포괄하는 광범한 민족적애국운동으로 확대발전하였으며 그것은 선군혁명위업수행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되였습니다.

제 34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운동을 재건하며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운동을 적극 추진시키고 반제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시는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운동을 재건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3(1994)년 11월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당하였지만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는 의연히 인민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전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

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의 사회주의사상리론에 대한 대외선전을 강화하여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의 사상리론이 집대성된 고전적로작들을 번역출판하여 보급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또한 주체사상신봉자들의 국제적인 토론회를 통하여 사회주의사상리론을 널리 선전보급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여러 나라 혁명적당들과 혁명가들의 투쟁을 성심성의로 도와주도록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볼리비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를 만나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운동의 재건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여러 나라 정당지도자들과 개별적인사들을 우리 나라에 초청하여 주체사상이 구현된 사회주의현실을 보여주도록 하시고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반제자주를 위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모든 형태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세계 모든 혁명적당들과 굳게 단결하고 적극 협력해나갈것이며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책임을 다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견결히 고수할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6(1997)년 6월 고전적로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여 다른 나라와 민족을 동화시키고 예속시키려는 미제의 책동의 반동적본질과 그를 반대배격하기 위한 투쟁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제와 나토의 침략책동에 완강히 대항해나선 유고슬라비아(당시)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평화를 지향하는 현국제관계를 엄중히 파괴한 미제와 나토의 오만한 침략행위를 엄중시하고 준렬히 단죄규탄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반제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투쟁에서 중국, 로씨야와

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특별히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쟝쩌민(강택민)주석과 상봉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9(2000)년 5월과 그 이듬해 1월에 력사적인 중국방문을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중국방문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두 당, 두 나라사이의 호상리해와 신뢰, 친선과 협조를 더욱 두터이 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발전시키며 반제자주력량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사변으로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씨야와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는데도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조로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위대한 장군님의 로씨야방문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90(2001)년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로씨야에 체류하시였으며 8월 4일과 5일에 공식방문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모스크바선언》문에 수표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 세기에 들어와 진행하신 로씨야방문과 조로모스크바선언의 채택은 조로친선관계력사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되였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전세계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거대한 기여로 되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새 세기 첫해에 중국과 로씨야련방을 방문하신 로정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국가관계를 맺고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게 하시는 한편 유럽나라들과의 관계도 우리 혁명발전에 유리하게 전환시키도록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유럽동맹 최고위급대표단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유럽동맹 최고위급대표단과의 담화에서 우리 나라와 유럽동맹사이의 관계개선과 일련의 국제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새 세기초에 들

어와 유럽동맹과 이딸리아, 영국,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그 성원국들이 우리 나라와 련이어 외교관계를 맺게 되였습니다. 유럽동맹나라뿐아니라 필리핀과 쿠웨이트, 뛰르끼예, 카나다와 브라질, 뉴질랜드, 바레인 등 세계 많은 나라들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습니다.

○ 이 사진이 사회주의재건운동과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과 날로 높아가는 우리 나라의 대외적권위에 대한 신문보도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의 국제적지위와 영향력이 더욱 높아지고 반제자주력량을 강화하며 세계평화와 안전, 정의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습니다.

제 35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 이 판에 모신 사진은 우리 군대와 인민, 청소년학생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백두의 천출명장이시며 세계의 정치원로이시였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끝없는 행복과 사랑을 안겨주신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이십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 청소년학생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살며 투쟁해온것은 우리모두의 가장 큰 영광이며 행복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소년단원들을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키우기 위하여 우리모두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크나큰 영광과 사랑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크나큰 영광과 행복만을 받아안으며 자란 새 세대들로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며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에 끝까지 충정을 다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를 깊이 학습하고 장군님께서 청소년사업부문에 주신 말씀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따라배우자!》는 혁명적구호밑에 공부를 잘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도덕품성을 갖추며 몸을 튼튼히 단련하고 지덕체를 겸비한 유능한 혁명인재로 억세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은 조직을 사랑하고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은 사회정치활동과 좋은일하기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영예의 붉은기쟁취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모두다 영예의 붉은기학급, 영예의 붉은기학교의 영예를 지녀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며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념원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본새로 혁명의 길을 끝

까지 걷는 순결한 인간이 되여야 하며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300만의 결사대, 선군시대의 리수복이 되여야 합니다.

모든 소년단원들은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께서 위대한 애국헌신으로 지켜주신 성스러운 혁명의 붉은기를 끝까지 지키며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선생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주체의 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당의 참된 소년근위대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김정일장군님혁명활동연구실
도 록 해 설

(중학교 소년단원용)

재판

집 필 리정윤

편 집 황상국 장 정 한명신

편 성 정향애 교 정 전경숙

내 곳 금 성 청 년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1(2012)년 1월 10일

발 행 주체101(2012)년 1월 15일

ㄱ—15458ㅂ 값 2 0 원